

고양환경운동연합
제22차 정기총회

일시 : 2020년 1월 31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덕양구청 소회의실

환경운동연합 강령

환경은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삶의 원천이며 인간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생명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착취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 또한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대기의 온전한 상태를 보전하여 바다, 강, 산에서 생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계속 서식하길 바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적으로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산성비, 산림 파괴 그리고 방사능의 공포 등으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환경위기의 최대 원인은 자연의 상태를 무시한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과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특히 다국적 기업의 활동 속에 있다. 그러나 성장정책의 소산인 국민 일반의 소비적 생활 태도에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 특히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특별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 가능한 사회 건설이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를 굳게 믿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1.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파괴적인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인 산업구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부의 편중과 도시 과밀화에 반대하여, 부의 사회적 재분배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환경교육을 전 사회 구성원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생태계 순환적이고 환경에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자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에 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문제의 일차적인 피해자인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환경재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이해와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생명의 원천인 물과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수입농산물로부터 우리 쌀과 농업을 지켜 국토 환경보전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유해 독성물질의 발생이 최대한 억제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폐기물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산 단계로부터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사치품의 생산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골프장, 간척사업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핵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에 반대하며, 안전하고 재생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핵개발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군비 감축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운동의 주체인 피해 지역 주민과 각계각층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조직화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1. 우리는 사회평등과 민족 통일의 실현이 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초임을 인식,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지구 환경문제의 주된 책임 당사자인 선진국이 환경기술의 국제적 이전과 재정 부담에 성실히 나서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인류의 항구적인 생존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한다.

고양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고양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이다. 고봉산의 어머니 품속과 같은 산세와 덕양산의 기개가 어우러지며 북한산의 정기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핏줄과 같은 창릉천과 공릉천의 맑은 물은 고양시민의 가슴 속에 생명력으로 살아 넘치고 있다. 송포와 탄현의 기름진 땅에서는 온갖 곡식이 넘쳐 생산되고 있으며 서삼릉과 서오릉 등 조선 왕조의 역사 유산이 자리 잡고 있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선사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고양을 지키고 사랑하며 이 땅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다. 환경과 삶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우리 고양은 오염되지 않은 쾌적한 고장이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신도시의 개발로 한강벌의 너른 들이 아파트에 잠식되었고 엄청난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예로부터 간직 해왔던 천혜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위협 당하게 되었다. 이는 불과 1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일로 고양의 숲은 파헤쳐졌고 맑았던 하천은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으며 대기 중에는 유해 독소가 떠다니게 되었다. 환경은 한 번 오염되면 스스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과 생존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게 된 것은 급속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반 환경적 정책 때문이다. 근시안적 행정으로 개발만을 일삼는 행정가와 우리 시민들 개개인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은 환경을 더욱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친환경적이지 못한 개발은 당장은 기업과 고양시에 이익을 가져다줄지 모른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도시를 염원하며 고양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 끝내는 참담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성장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문제가 생길 때는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고양시의 미래는 희망적일 수 없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무의식, 무소신적 행태는 건강한 시민들의 생활습관마저 무절제한 소비 위주로 흐르게 만들어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아파트 문화는 소비문화의 정체성을 가져옴으로써 엄청난 음식 쓰레기를 양산하고 젖은 쓰레기를 오일로 태워야 하는 반 환경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고양시 곳곳에서 무분별한 자연파괴 행위에 분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고양시 각처에서 활동해 오던 여러 시민들이 함께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한 깃발 아래로 모이게 되었다. 이렇듯 한 깃발 아래 모인 우리는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각 지역의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운동을 벌임으로써 고양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실천 운동으로 환경 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새로 출발하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파괴,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환경의식과 실천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시민운동을 펼쳐 나가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고양지역 내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고양시 역시 환경보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서구 문명의 소산인 인간 이기주의의 틀을 깨고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순환의 질서를 되찾고, 자연과 더불어 모든 인류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이다. 그러나 초록빛 지구의 색깔이 바래질 때 지구만이 아닌 온 우주마저도 혼탁한 कै멸의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인간은 사고하고 창조하는 자연물로서 우주의 미래까지도 걱정하는 슬기로운 삶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파괴, 오염된 이 땅에서 온몸으로 환경운동을 일구었던 지난날의 노력이 오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굳건한 발판이 될 수 있었음을 자부하면서 앞으로 고양시 환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한다.

단기 4331년 (1998) 6월 13일

목 차

환경운동연합 비전	6
총회식순	7
연혁보고	8
고양환경운동연합 정관	11
전차 회의록	17
2019 활동일지	19
2019 사업보고	23
2019 결산보고	29
2019 사업회계감사보고	32
정관개정안	34
임원선출 및 인준안	35
2020 사업계획안	36
2020 예산안	39
2019 활동 사진	41
언론보도 및 성명서	47
웹자보	74

환경운동연합 비전

핵심 가치

생명 평화 생태 참여

목표

생명이 숨 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 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

New KFEM 전략

아시아와 환경운동을 함께한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앞장선다.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한다.
생태순환 경제사회를 구축한다.
국가를 녹색으로 개혁한다.
생태적 삶과 지역자치를 실현한다.
세대와 공간을 넘어 소통한다.

핵심 구호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총 회 식 순

■ 총회전 행사

- 사회자 인사
- 내외빈 및 임원 소개
- 인사말 : 조정
- 축 사 :
 - 위촉장 수여: 김준봉교수, 김해련의원, 김경희의원, 장석환교수
 - 시상식 : 나들목일산교회, 동녘교회, 성공회일산교회, 주날개그늘교회, 백석교회, 박남희, 문성준, 박찬호, 박상빈, 임충만, 조옥제, 최은영

◆ 성원 보고

◆ 개회 선언

◆ 서기 지명

◆ 전차 회의록 보고

◆ 안전 상정

◆ 안전 처리

1. 2019사업보고 승인의 건
2. 2019 결산보고 승인의 건
3. 2019 감사보고서(사업·회계) 승인의 건
4. 정관개정안
5. 운영위원 선임 및 인준
6. 2020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7. 2020 예산안 승인의 건
8. 기타 안건

◆ 폐회

*광고

연혁보고

- ◎ 1994년
 - 1월 : 고양환경시민연합 준비모임 결성
 - 4월 30일 : 고양환경시민연합 발기인 대회
[창립준비위원장 - 이건현(유도회회장) / 총무-신기식(목사) / 간사 - 김홍익]
 - 9월 10일 : 고양환경시민연합 창립총회 및 사무실 개소(덕양구 주교동 603-1 태평빌딩2층)
회장-허준(고양시의회 의장) / 사무국장-김홍익]
- ◎ 1995년
 - 사무실 이전(덕양구 토당동 112-3), 사무국장 최태봉 선임
- ◎ 1997년
 - 9월 : <고양환경운동연합>으로 명칭변경 결의(임시총회 개최)
- ◎ 1998년
 - 6월 13일 : 고양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공동대표 이항규 박사)
[공동대표-이항규 박사(상임), 유재덕(목사), 박종후(스님) / 사무국장 - 김홍익]
(※사무실 이전 : 일산구 풍동 154-7 성원빌딩)
 - 10월 29일 : 제 4차 집행위원회(조직개편 결의)
[고문 - 유재덕, 박종후 / 상임공동대표 - 신기식 / 사무국장 - 강지형]
- ◎ 1999년
 - 3월 : 강지형 사무국장 사임, 사무국장 직무대행 김홍익
- ◎ 2000년
 - 4월 25일 : 제2차 정기총회
[고문 - 신기식(목사) / 상임공동대표 - 정성진(목사)] 김홍익 사무국장 사임
 - 11월 9일: 임시총회 개최
[정성진 상임대표 사임(고문으로 추대) / 공동대표 - 고영석(교수), 김성호(법사)]
 - 11월 15일 : 사무실 이전(일산구 일산2동 1560-3 한진프라자 402호)
- ◎ 2001년
 - 6월 2일 : 제3차 정기총회
[공동의장 - 고영석 / 김성호]
- ◎ 2002년
 - 2월 22일 : 제4차 정기총회
[공동의장 - 정성진 / 이치범 / 김성호]
- ◎ 2003년
 - 2월 8일 : 제5차 정기총회
[고문 - 김지하, 고영석, 두봉주교, 이건현 / 공동의장 - 정성진, 김성호, 조현주 /
간사 - 김병수, 김홍익 / 사무국장 - 최태봉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04년
 - 1월 31일 : 제6차 정기총회
[공동의장 - 정성진, 조현주 / 집행위원장 박평수]
- ◎ 2005년
 - 1월29일 : 제7차 정기총회
[고문 - 고영석, 김지하, 이건현, 홍갑표 / 상임의장 - 조현주,
의장 - 정성진 / 감사 - 김병수, 김홍익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06년
 - 1월 21일 : 제8차 정기총회
[고문 - 고영석, 김지하, 이건현, 이치범, 홍갑표 / 공동의장 - 정숙현(교무),
정성진(목사) / 감사 - 김병수, 김홍익 / 집행위원장 - 박경석]
- ◎ 2007년
 - 1월 20일 : 제9차 정기총회
[고문 - 강태희 / 공동의장 - 숙태원 정숙현, 정성진(목사) / 감사 - 김병수,
김홍익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08년
 - 1월 19일 : 제10차 정기총회
[고문 - 강태희, 이치범, 정성진 / 공동의장 - 최성양(원불교교무),
권혁동(신부) / 감사 - 김병수, 김홍익 / 집행위원장 - 황유성]
- ◎ 2009년
 - 1월 31일 : 제11차 정기총회
[고문-강태희, 이치범, 정성진/공동의장 - 송기섭(목사), 권혁동(신부)
/ 감사-김병수, 김홍익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10년
 - 1월 30일 : 제12차 정기총회
[고문-강태희, 이치범, 정성진/공동의장-송기섭(목사), 권혁동(신부)
/ 감사-김병수, 김홍익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11년
 - 1월 22일: 제13차 정기총회
[고문-강태희, 이치범, 정성진/ 의장 - 안경신
/ 감사-박수택, 윤정문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12년
 - 1월 28일 : 제14차 정기총회
[고문 - 강태희, 이치범, 정성진 / 의장-안경신
/ 감사-박수택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13년
 - 1월 26일 : 제15차 정기총회
[고문 - 강태희, 이치범, 정성진 / 의장 - 안경신
/ 감사 - 박수택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14년
 - 1월 25일 : 제16차 정기총회
[고문 - 안경신, 이치범 / 공동의장 - 박평수, 이철국, 조정
/ 감사 - 유시훈 / 집행위원장 - 황유성]
- ◎ 2015년
 - 1월 24일 : 제17차 정기총회
[고문 - 안경신, 이치범, / 공동의장 - 이철국, 조정
/ 감사 - 유시훈 / 운영위원장 - 황유성]
- ◎ 2016년
 - 1월 30일 : 제18차 정기총회
[고문 - 안경신, 이치범, 조정 / 의장 - 황유성
/ 감사 - 김경숙 / 운영위원장 - 이병주]
- ◎ 2017년
 - 2월 5일 : 제19차 정기총회
[고문 - 안경신, 이철국, 유재덕 / 공동의장 - 조정, 황유성
/ 감사 - 김명원 / 운영위원장 - 이병주]
- ◎ 2018년
 - 2월 2일 : 제20차 정기총회
[고문 - 유재덕, 이철국, 황유성 / 의장 - 조정
/ 감사 - 박영신, 김명원 / 운영위원장 - 이경현]
- ◎ 2019년
 - 1월 24일 : 제21차 정기총회
[고문 - 유재덕 / 의장 - 조정, 정상호, 이재후
/ 감사 - 안희철, 운영학 / 운영위원장 - 정상호]

고양환경운동연합 정관

개정일 : 2016년 01월 30일

개정일 : 2017년 02월 05일

개정일 : 2018년 02월 02일

개정일 : 2019년 01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고양환경운동연합(약칭 ‘고양환경연합’, 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영문명은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Goyang (약칭 ‘KFEM Goyang’)”라 칭한다.

제2조 [설립]

본회는 환경운동연합 정관에 의해 고양지역 네트워크 조직으로 설립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고양시 내에 둔다.

제4조 [목적]

본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환경운동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터로 만들어 감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고양시 관내 환경, 생태의 보존에 주력한다.

제5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 감시 및 정책제안운동
2.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생활환경실천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3. 환경연합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5.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하며,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최근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거나 약정 연회비의 50% 이상을 납부한 개인회원으로 한다.
단, 타지역 이관 회원은 이관 즉시 정회원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는 동의하고 후원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회원으로 한다.

제7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활동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단, 정당의 당원이나 그에 준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미납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회원은 회비 납부 및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 [상벌]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가. 본 회의 활동 및 사업을 방해할 때
 - 나. 회비 납부 의무를 태만히 할 때
 - 다. 정관 또는 모든 규정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 라. 징계를 받은 회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0조 [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 한다.

제3장 조직

제11조 [임원의 자격 및 구성]

1.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2.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3. 모든 임원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 [의장]

본 회를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3조 [운영위원]

1.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집행하며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정당의 당직(상근여부와 무관) 및 선출직 공직을 갖지 않은 자에 한한다.

제14조 [감사]

본 회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로 구성한다.

제15조 [고문]

본 회의 활동을 지지·지원하고 활동을 조언하기 위해 지역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한다.

제16조 [지도·자문위원]

본 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도·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및 부설기구]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및 부설 기구들을 둘 수 있다.

제18조 [사무국]

1. 본 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일상적인 사무처리와 활동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본 회의 소식지 발행 및 홍보를 위해 편집부를 설치하고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사무국이 전체사업과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4.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2. 본 회의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제4장 총회

제21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된다.
2. 총회는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 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회원의 경우 문자, 이메일, 서면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3. 의장은 지체 없이 임원 및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15인 이내의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준비위원회]

1. 총회준비위원회는 총회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총회 시 총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 등을 총회준비위원회의 명의로 공지하여야 한다.
3. 총회준비위원장은 정당의 당원 가입이나 당원에 준하는 직책을 갖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총회준비위원회는 시작과 동시에 당해 운영위의 기능과 역할을 포괄하여 진행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개정
2. 사업 계획 및 예결산안의 승인
3. 공동의장,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의 인준
4. 본 회의 합병 또는 해산 의결
5.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이나 기타 중요한 안건 의결

제25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회의 합병 또는 해산의 경우,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6조 [구성]

1. 총회준비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하며 의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8조 [기능]

1. 본 회의 주요사업 및 정책의 심의 및 의결
2. 예산, 결산의 심의
3. 고문, 지도, 자문, 정책, 교육 위원 등 위촉
4.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산하 부서의 설치 및 해체
6. 상·벌 관계의 심의 및 결정
7. 실무자의 임명 및 해임 승인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 처리

제29조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연 12회의 정기회의(총준위포함)를 가지며 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안건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위임통지의 경우 포괄위임이 아닌, 안전에 따라 한정위임을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주관한다. 단,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진행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1조 [회비]

회비의 규모와 납부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 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회계투명성]

본 회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홈페이지 및 회원소식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과 사회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본 정관과 환경운동연합 중앙 정관이 상충할 때에는 본 정관이 우선한다.

21차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일산동구청 다목적실

총준위원장: 조정

사회: 1부 이영강, 2부 이영강

▶ 1부 - 정기총회

1. 개회선언-재적회원 총 324명 중 37명 참석으로 정관 제21조2항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알림
2. 국민의례
3. 내·외빈 및 임원소개- 김해련시의원, 김서현시의원, 조정의장, 최준호사무총장, 송영주위원장
4. 축하공연: 송승희 명창
5. 인사말 - 조정 의장
6. 격려사- 유재덕 고문
7. 현황산 PPT발표- 조정의장
8. 에코싸이언스 PPT- 오춘분 국장
9. 시상- 촛불대표(정이랑, 오영주), 더불어 성사천, 오춘분

▶ 2부

1. 임시 의장 선출
 - 조정총준위원장의 제의로 정상호님이 임시의장에 선출됨에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의장에 선출됨
2. 2018년 사업 및 회계 보고
 - 이영강 사무국장이 사업 및 회계 보고하다.
 - 보고된 내용중 궁금하신 것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함 의견이 특별히 없어서 안건은 넘어갔다

3. 2017년 감사 보고

- 김명원감사님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대신 보고하기로 함
- 박영신 감사님의 불참으로 사업감사보고를 대신 보고하기로 함
- 회계감사는 외부감사로 위촉을 받아 회계감사보고를 하다

4. 정관 개정

- 임원을 운영위원 포함이 아닌 운영위원장만 포함시키기로 함
운영위원은 정당의 당직 및 선출직 공직을 갖지 않은 자로 한정함
11조 3항에 추가되었으므로 중보적인 부분 삭제
위임에 있어 포괄적 위임은 적절치 않고, 안건별 개별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에 명문화하는 것이 맞다 고 함

- 정관개정안 심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로 함

5. 임원 선출

- 정성호 총준위원들의 총준위에서 추천한 분들을 인준 요청함.
- 의장: 정성호, 이재후, 조정
- 사무국장:
- 고문: 유재덕 연임
- 위원: 마귀자, 문희영, 박상빈, 박찬호, 오영주, 오춘분, 정이랑,
이영혜
- 감사: 김명원
- 정상호 임시의장 심의안으로 상정하기로 함
상정한 임원선출안에 이의 없으므로 인준함

6. 2019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의결

- 이영강 사업 및 예산안 발표하다.
- 사업 및 예산안 만장일치로 의결함

7. 기타 - 이영강 사무국장 이임사

8. 공지사항 - 뒷풀이 식사자리 '이바둑' 소개

9. 오춘분 운영위원님이 환경발전소 소장으로 선출됨

10. 폐회선언 하다 (9:26 P.M)

2019년 활동일지

- 1월 1일 고양시청앞 해돋이 및 떡국나눔
2일 출근길 거리 선전전(피켓팅)-이영강, 최태봉
퇴근길 거리선전전(영상, 피켓팅)-김대권, 이윤정, 오춘분, 마신자
8일 정이랑, 마귀자 출석 요구한 고양경찰서 규탄 성명 기자회견
9일 출·퇴근길 거리 선전전(오전 7시/오후 8시)
10일 화정역 집중의 날(거리선전전) 오후 1:30~3:00
12일 경기 영상고 석면 모니터링
14일 한강하구 재두루미 모니터링
총준위 6차 회의
15일 마두역 전단지 나눔(오후 1시)
16일 신곡수중보 시민 모니터링(오후 1시)
21일 감사원 추가 첨부 자료 접수
24일 제21차 정기총회(일산동구청 다목적실, 오후 6:30)
25일 지하수 모니터링(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양을 검침)
28일 환경발전소 회의 (오후2시, 주엽 911 안전센터)
- 2월 9일 산황동 땅밟기
13일 시의회앞 피켓팅
22일 지하수 모니터링(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양을 검침)
22-23일 고양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워크샵
27-3월 2일 사무실 바닥 교체 및 정리
28-3월 2일 순천 멸종 위기 종 서식지 워크샵 참여 (참석자-최수자)
- 3월 12일 릴레이 텐트 농성 100일 기자회견(고양시청 11:00)
(텐트농성 시작일: 2018년12월 3일)
6,9,15,29일 공릉천 모니터링
(오래되어 낙후된 시설은 이미 없어졌으며, 대체로 농협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
환경에 악영향을 줄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됨)
16,23,30일-산황산 정화활동
·목적: 산황산이 도심숲으로서의 소중함을 알고, 깨끗한 산을 가꾸기 위해 정화활동
·과정: 1회 8명에서 13명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여, 정화활동을 하고 이미 산에
들어선 골프장의 증설을 막는 것의 당위성을 학습
·결과: 도심숲으로서의 산황산의 소중함을 잘 알 수 있었다

22일 회원배가 세미나(강사-청주환경운동연합의 이성우 사무처장)
22일 지하수 모니터링(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양을 검침)
24일-행주강변 걷기 (오후 1:00 , 참여자: 회원 약 30명)

4월 2일-환경지킴이 강사 면접

6,13,20,27일 매주 토요일 산황산 정화활동
3,10,17,24일 매주 수요일 환경그림책읽기(장소:고양시청텐트농성장, 시간:10:30)
11일 한류천 탐방 (마귀자, 박찬호)
13일 세월호 참사 5주기 고양시민 기억의 날 참여 (문화광장)
17일 한강유역청 회의
24일 지하수 모니터링(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양을 검침)
26일 1차 소식지 발간
27일 산황산 지키기 피켓팅 (장소: 미관광장)
30일 산황산을 숲으로 문화제(시의회앞 텐트 농성장 7:00)

5월 회원배가운동 시작

10일 환경가족 별밤체험마당 (고양자유학교 19:00)
1, 08,15, 22, 29일 매주 수요일 환경그림책읽기(장소:고양시청텐트농성장, 시간:10:30)
11일 교육분과 중고등부 환경지킴이 교육 시작
15일 교육분과 교사면접
20일 장항습지 탐방
(목적: 장항습지 보존을 위해 고양환경운동연합이 할 일을 계획하기 위한 방문
참여자: 이영혜, 마귀자, 박찬호, 최수자, 문희영)
24일 산황산을 숲으로 문화제(주최: 고양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밥통)
24일 산황동 골프장 지하수 모니터링
28일 3기 신도시 계획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발표
30일 "산황동 골프장 취소를 환영한다" 기자회견(고양시청 , 11:00)
31일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워크샵(참여자: 마귀자, 오영주, 이영혜)

6월 6일 환경의 날 행사 개최 (호수공원 11:00)

12, 19, 26일 매주 수요일 환경그림책읽기(장소:고양시청텐트농성장, 시간:10:30)
12일 경기국장단회의 참석(최수자)
12일 '3기 신도시 어떻게 볼것인가?'워크샵(환경운동연합 중앙 주최)참여(최수자)

7월 4일 '이재준시장은 실천으로 진정성 입증하라' 골프장 직권취소 촉구 기자회견
(고양시청, 11:00)

4일 '산황산골프장을 숲으로' 3차 문화제 (시의회앞 텐트 농성장. 19:00)
6일 환경지킴이(에코프로파일러)강좌 시작
9일 '숲·생명' 배지 제작
19일 지하수 모니터링(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양을 검침)
24일 2차 소식지 발간

26일 환경지킴이(곤충의 한살이)강좌 시작
 29일 3기신도시계획에 대한 토론회 개최 (일산동구청. 18:00)
 (패널:박숙현 경희사이버대학교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처장, 이태영 녹색당정책위원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한동욱 에코코리아이사,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의장)
 31일 서울청와대 앞(설악산오색케이블 백지화) 기자회견 참석(마귀자, 조정, 오경아)

8월 6일 설악산오색케이블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참석
 (서울프레스센터 11:00, 정성남, 오경아)
 9일 환경영화 무료상영 (장소: 커피에 빠진 장풍이 곤충카페)
 23일 곤충의 한 살이 수업 종강, 수료식
 23일 지하수 모니터링(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양을 검침)
 31일 에코프로파일러 수업 종강, 수료식

9월 5일 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참석
 (서울 세종문화회관. 19:00, 참석자:마귀자 문희영, 정성남, 오경아)
 10일 태풍 피해를 입은 산황동 느티나무 치료촉구 기자회견과 임시조치
 17일 시민사회연대회의 회의 참석
 20일 지하수 모니터링(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양을 검침)
 21일 풍백산책- 나희덕 시인의 문화예술 강의(시간: 19:00~)
 23일 공릉천상류와 그린벨트 조사 (신원동 그린벨트 야적장 조사)
 (참여: 주민 10여명, 조정, 박찬호)
 26일 2차 별밤 행사 진행 (고양자유학교. 19:00)

10월 11일 백양초등학교 바자회 참석
 18일 지하수 모니터링(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양을 검침)
 23일 산황동 느티나무 치료 완료
 22일 공익수호시민을 범죄자로 만든 고양시장규탄 기자회견
 (운영위원 중 3인 기소유예,2일 기소 구공판)
 26일 풍백산책- 금빛나씨의 오디시 공연(장소: 성공회 일산교회, 시간: 19:00~)

11월 2,7,16,23,28 성인 환경지킴이 수업
 5일 산황동 경기도 1호 보호수 느티나무 고천제 (장소: 느티나무 앞, 11시)
 8일 공익수호시민을 범죄자로 만든 비민주적 소송을 비판하는 기자회견(고양지원)
 13일 총준위 1차 회의
 16일 풍백산책- 김순희씨의 해금연주(장소: 성공회 일산교회, 시간: 19:00~)
 22일 지하수 모니터링(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양을 검침)
 26,27일 5년 이하 환경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참석 (장소: (재)숲과 나눔 강당)
 27일 2차 총준위 회의
 28일 산황산 나무고사 실태와 조치수립을 위해 공무원과 산행
 28일 성인 환경지킴이 교육(곤충), 저녁식사
 29일 3차 소식지 발간

- 12월 2일 산황산 나무고사 조치촉구 공문 발송
- 3일 산황산 나무고사 실태와 조치수립을 위해 공무원과 산행
- 11일 산황산 나무고사와 불법 벌목에 대한 조치한 내용을 공문으로 수령
- 11일 위의 공문의 회신 보냄
- 11일 총준위 3차 회의
- 20일 지하수 모니터링(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양을 검침)
- 27일 총준위 4차 회의
- 28일 산황산 정화활동

2019년 사업보고

■ 고양시 생태계 보전 운동

○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 운동

1. 현 안 개요

개발제한구역인 일산동구 산황동의 임야 일부(23만㎡)에 퍼블릭 골프장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상황에서 2014년 7월 고양시장이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 도시관리 계획결정 변경(체육:골프) 고시. 과도한 녹지훼손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도시팽창에 따른 대기 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며, 환경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고양시가 대표적 반 환경 시설을 증설하고자 자연녹지를 훼손하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골프장 증설에 따른 주민생존권 침해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2014년 2월부터 반대 운동 개시하였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뜻을 같이 하는 고양시 시민단체와 함께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를 2015년 구성하고 2018년에는 1월~4월 고양시와 공동검증단 회의를 진행 중 고양시의 일방적 공동검증단회의 무산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보냄으로서 현장실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줄속으로 진행 5월 환경청앞에 기자회견과 천막농성을 범대위가 시작, 6월에는 시민불복종의 날을 선언 고양시청앞에서 시민대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7월 환경청은 친환경농약과 지하수가 아닌 재처리수사용이라는 조건부 동의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시민들은 고양시 5개 지역에서 매일 밤 촛불 버스킹을 진행하였고 매주토요일 산황산 걷기를 진행하였으며 시청 앞 1인 시위 스프링힐스 지하수 모니터링을 진행 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고양시청 앞에 직권취소를 위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2019년 1월에는 전단지 나눔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수장과의 가까운 거리에 골프장이 생겨 농약수돗물을 먹게 되는 현실을 알렸다. 또 2월과 4월에는 산황산을 학생들과 돌아보고, 정화하는 활동을 하였다. 3월 4일에 '텐트농성 100일 기자회견', 5월 3기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산황산에 도로가 난다는 계획으로 골프장 계획이 취소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7월에 골프장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고양시 건교위 시의원들과의 산황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11월에는 텐트 농성을 시작하며 공무원들의 폭력진압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고소당하여, 범죄자를 만든 비민주적 소송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고양지원 앞에서 했다. 또한 산황산을 숲으로 되돌려달라는 염원을 담아 4월부터 7월까지 세 번의 문화제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황산 보호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현재까지 고양시청앞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직권취소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 현 안 내 용

가. 성명서 및 기자회견

- 2019. 01. 08. 오전9시 고양경찰서
정이랑, 마귀자 출석요구한 고양경찰서 규탄 성명 기자회견
- 2019. 03 .12. 오전11시 고양시청 현관앞
텔레이 텐트 농성 100일 기자회견
- 2019. 05. 28.
3기 신도시 계획 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발표
- 2019. 05. 30. 오전11시 고양시청 현관앞
'산황산 골프장 취소를 환영한다' 기자회견
- 2019. 07. 04. 오전11시 고양시청 현관 앞
'이재준시장은 실천으로 진정성 입증하라' 골프장 직권취소 촉구 기자회견
- 2019. 10. 22. 오전11시 고양시청앞 현관앞
공익수호 시민을 범죄자로 만든 고양시장 규탄 기자회견
- 2019. 11. 08. 오전11시 고양지원 앞
공익수호 시민을 범죄자로 만든 비민주적 소송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나. 산황동 문제 해결을 위한 건교위 위원들과의 간담회

- 1) 일시 : 7월 4일 오후1시
- 2) 장소 : 고양시 시의회 회의실

다. 산황동 현장실사

11월28일 고양시청 일산 동구청 공무원들과 현장실사
(산황산 불법 벌목과 고사의 상황보기)
장소 : 산황산

12월 03일 일산 동구청 공무원들과 현장실사
(산황산 불법 벌목과 고사 현장 방문)
장소 : 산황산

라. '산황산을 숲으로' 문화제

	1차	2차	3차
기간 및 일시	4월30일 오후 5:00	5월30일 오후 5:00	7월04일 오후 5:00
참여인원	회원 약 40여명	회원 약 40여명	회원 약 50여명
장소	고양시청 텐트 농성장	고양시청 텐트 농성장	고양시청 텐트 농성장
내용	산황산 골프장 취소 촉구 집중 발언, 문화제, 밥통의 식사		

마. 산황산 정화활동

- 1) 기간 : 2019년 4월6일 ~ 5월29일
- 2) 일시 : 토요일 10:00~13:00
- 3) 참여인원: 100여명
- 4) 장 소 : 마을회관-골프장-산황산느티나무-화평교회
- 5) 내 용 : ‘산황산을 살리자’ 시민참여행사/ 산황산 일대의 정화활동

바. 고양시 골프장 지하수 모니터링

- 1) 기간 :2019년 01월~ 현재
- 2) 참여단체 및 인원: 시민 2명, 고양환경련 3명
- 3) 내용: 매월 스프링힐스를 조사하고, 앞으로 고양시 관내 골프장들의 지하수 사용
과 관정 설치의 실제 상황을 점검

사. 고양 시청앞 천막농성

- 1) 기간 및 일시: 2018년 12월 3일~현재까지
- 2) 참여단체 :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 대책위, 고양환경련 회원
- 3) 내용: ·12월3일 1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주야로 시민들과 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목요일은 ‘목요기도회’를 하고 있다.

○ **고양시 생태 및 환경모니터링**

1.장항습지 모니터링

- 1) 기간 및 일시: 2019년 5월 20일 오전 9:00~
- 2) 참여자: 이영혜, 마귀자, 박찬호, 최수자, 문희영(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
- 3) 장소: 장항 습지
- 4) 내용: 환경운동연합 회원 5명이 장항습지 탐방 진행
식물 모니터링을 통해 주변 환경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항 습지 보존을 위해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할 계획수립

2.공릉천 오염원조사 시민 모니터링

- 1) 기간 : 2019년 3월 6, 9, 15, 29일 오전 10:00~
- 2) 참여자: 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4개조 2명이 한 팀으로 조사 실시
- 3) 장소: 공릉천 중류지역 (지영교~ 공릉천교)
문봉동 13개, 설문동 38개, 성석동 18개, 지영동 47개 측사 모니터링
- 4) 목표: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지속적인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지속되는 공릉천 살리기에 시민 모니터링을 하여 오염원조사와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
- 5) 결과: : 오래되어 낙후된 시설이 거의 없어졌으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모아놓은 축분은 조금 있었으나, 강에서 멀리 떨어져 저장, 사용하고 있었다.
대체로 농협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 환경개선 사업이 되어 있었으며, 환경에 악영향을 줄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환경운동연합 경기 연대 활동

○ 전국 사무국처장단 회의 및 경기 사무국처장단회의

전국 50여개의 기초, 광역 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처장단과 임원 등의 회의, 수도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처장 회의를 통하여 환경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공동으로 현안 대응 및 대책 모색하고 있음

■ 회원사업

○ 문화예술 활동(회원사업)

▶ 풍백산책

- 1) 기간 및 일시: 2019년 9월 5일/ 10월26일/11월 16일 오후 7:00~
- 2) 참여자: 회당 7~12명(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
- 3) 장소: 백마역, 성공회 일산교회
- 4) 내용: 도심녹지축(호수공원-문화광장-정발산 산책길-밤가시공원-경의선 산책로-산황동) 제안을 위한 행사

풍산역에서 백마역까지의 산책로를 여유롭게 산책하고, 시를 낭송하며 자연과 인생에 대해 얘기하고, 오디시 무용을 감상하며 신에대한 간절함을 느끼고, 한국전통악기인 해금의 선율을 감상하였다.

회원사업으로 2020년에도 지속할 예정

▶ 환경 그림책 읽기

- 1) 기간 및 일시: 2019년 4월 ~6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 2) 참여자: 회당 3~6명(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
- 3) 장소: 고양시청 시의회앞 텐트 농성장
- 4) 내용: 우수한 환경관련 그림책을 보며 자연을 느끼고, 살아있는 모든 것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지구 온난화, 환경호르몬, 대기 오염 및 미세 먼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봄

▶ 환경 책 읽기

- 1) 기간 및 일시: 2019년 9월 28일 ~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2) 참여자: 회당 3~4명(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
- 3) 장소: 산황산 또는 고양시청 시의회앞 텐트 농성장
- 4) 내용: 김종철 저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를 함께 읽으며,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자본적 메카니즘에서 오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움

○ 시민 역량 강화 수업

▶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 환경지킴이

- 1) 기간 : 2019년 11월 2일 ~ 11월 28일 (5주)
- 2) 참여자: 회원 10명
- 3) 장소: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창덕궁 후원, 에너지드림센터,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 4) 내용: 자연과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야생동물과 같이 살기」, 「정원의 수목」, 「에너지 순환」, 「자연생태의 다양성」, 「생태계속의 곤충」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환경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환경안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할 일을 생각함

■ 교육 사업

▶ 환경 영화 무료 상영

- 1) 기간 : 2019년 8월 9일
- 2) 참여자: 회원 6명외(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
- 3) 장소: 커피에 빠진 장풍이 (곤충카페)
- 4) 내용: 환경에 관한 영화 「노 임팩트맨」을 회원들과 보는 행사로 영화감상 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며, 환경보전 인식 증진의 효과가 이었다고 보여짐

▶ 에코프로파일러

- 1) 기간 : 2019년 7월 6일 ~8월 31일 (매주 토요일 8회 수업)
- 2) 참여자: 중 고등학생 7명(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
- 3) 장소: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에너지 드림센터, 에너지 자립마을
- 4) 내용: 미래 환경분야에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에너지, 식량자원, 친환경제품등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환경분야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곤충의 한 살이**

- 1) 기간 : 2019년 7월 26일 ~8월 23일 (매주 금요일 5회 수업)
- 2) 참여자: 초등학생 11명(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
- 3) 장소: 커피에 빠진 장풍이(곤충카페), 야외 공원
- 4) 내용: 환경 속에서 곤충의 지위 및 생태를 배우고 곤충자원의 유용성을 알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환경지킴이 곤충을 알아봄.
학생들은 이 수업을 하며 환경과 곤충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태계 내에서의 곤충의 역할을 배워 지속 가능한 환경의 중요성을 배움

▶ **별밤 체험 마당**

	1차	2차
기간	2019년 5월 10일	2019년 9월 26일
참여인원	47명	23명
장소	고양자유학교	고양자유학교
지도교사	오춘분	오춘분
활동내용	늦은 봄의 별자리를 직접 3대의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재미있는 각 계절의 별자리 강의를 들었다.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아주 흥미로워했다	가을 별자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로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을 제작하였다. 망원경제작이 쉽지 않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제작하는 동안 먼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모두 즐겁게 과정에 참여함

2019년 결산보고

1. 수입결산

비목	항목	2018 수입결산	2019 수입결산	증감
회비	회비	47,523,260	41,263,630	-6,259,630
후원금	후원금	1,955,230	2,265,500	310,270
기타수입	교육사업	9,054,126	2,376,400	-6,677,726
	지원사업	14,000,000	0	-14,000,000
	관외 수입	2,313,680	1,250,000 (사업비 자기부담금 반환)	-1,063,680
	잡수입	333,538	1,074,397	740,859
	일자리안정자금		1,959,940	1,959,940
	이자	5,438	1,968	-3,470
수입합계		75,185,272	50,191,835	-24,993,437
전년도 이월금		9,932,756	14,976,125 (2018.12.31. 결산)	
총계		85,118,028	65,167,960	-19,950,068

2.지출결산

비목	항목	2018지출결산	2019지출결산	증감	
인건비	활동비	26,612,340	27,922,870	1,310,530	
	퇴직금 충당금	2,350,040	2,133,570	-216,470	
	상여금	300,000	0	-300,000	
	4대보험	2,725,550	2,287,230	-438,320	
	소계	31,987,930	32,343,670	355,740	
관리비	수도광열비	233,830	219,120	-14,710	
	통신비	539,880	1,538,030	998,150	
	소모품비	958,640	827,976	-130,664	
	관리비및임차료	2,974,500	2,970,000	-4,500	
	교통비	1,425,508	620,100	-805,408	
	지급수수료	351,805	138,741	-213,064	
	복리후생비	0	100,500	100,500	
	비품구입비	0	357,921	357,921	
	사무실 환경개선비	0	637,200	637,200	
	도서인쇄비	0	2,191,800	2,191,800	
	운영비	0	685,000	685,000	
	분담금	2,600,520	지역지원기금	699,990	
			중앙분담금	1,440,000	
			mrm유저비용	104,500	
	출판홍보비	432,000	1,025,000	593,000	
	회의비	252,180	263,750	11,570	
	출장비	136,800	149,600	12,800	
	기타	739,930	1,040,980	301,050	
	소계	10,645,593	15,026,202	4,380,609	
사업비	교육사업비	7,075,770	3,287,150	-3,788,620	
	회원사업비	4,184,780	4,832,580	647,800	
	연대사업	2,247,830	1,681,000	-566,830	
	지원사업비	14,000,000	0	-14,000,000	
	소계	27,508,380	9,800,730	-17,707,650	
지출합계		70,141,903	57,170,601	-12,971,302	
이월금		14,976,125	7,997,359	-6,978,766	
합계		85,118,028	65,167,960	-19,950,068	

- 기타: 착오금반환,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CMS수수료
- 교육사업비는 환경지킴이 통장에서 지출, 나머지는 모두 주계좌에서 지출

3. 2019 총결산

2019 수입	50,191,835	2019총수입	65,167,960
전년도 이월금	14,976,125	지출	57,170,601
합계	65,167,960	2019 잔액	7,997,359

4. 12월말 현재 통장잔액

예금종류	은행	용도	계좌번호	잔액
보통	농협	주계좌	157-01-159315	6,927,785
보통	농협	환경지킴이	157-01-166130	1,069,574
통장 합계				7,997,359

● 특별회계

예금종류	은행	용도	계좌번호	잔액
보통	농협	퇴직연금	157-01-164652	1,250,100

● 퇴직적립금 결산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퇴직적립금	2,133,570	퇴직금지급	5,850,230
예금이자		결산소득세, 지방세	
수입계	2,133,570	지출계	5,850,230
전년이월금	4,966,760	잔 액	1,250,100
총수입	7,100,330	총 계	1,250,100

● 임대보증금 - 월 247,500원 임차료

임대인	기간	금액
고양향교	2018.1.1.~	20,000,000

2019년 사업 · 회계 감사보고

1) 사업 감사 보고

“회원여러분! 지난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2019년도 사업으로

- 지역현안인 산황동골프장 증설 백지화운동, 김포-관산 간 지방도로 고양시구간 백지화운동, 환경모니터링(장항습지, 창릉천 등)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연대활동인 자원순환캠페인(플라스틱 제로 시민실천단 운영)과 경기도 환경운동연합 연대활동인 NOx모니터링, 문화예술활동인 동식물 세밀화 그리기, 여름 어린이생명평화캠프 등을 추진하며 환경관련 문제해결과 환경에 대한 마인드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 이중 산황동골프장 증설 백지화운동은 지속적인 기자회견과 함께 산황산 숲길걷기 및 생태놀이 등을 추진한 점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 지키기의 일환인 ‘학교 석면철거 모니터링’ 활동 역시 사전교육과 사후모니터링을 통하여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철거작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 이와 함께 자원순환캠페인 또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통하여 업체의 관행과 시민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환경을 지키는 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종합적으로 지난 한해 사업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운동 역시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올해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활동뿐만 아니라 환경제앙이라 불리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의 조사를 통한 생활수칙을 제시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고양시에 친환경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활동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4일

사업감사 안 회



2. 회계감사보고서

2019사업연도(2019. 01. 01 ~ 2019. 12. 31.)

본인은 외부 감사인 으로 위촉을 받아 고양환경운동연합의 2019 사업 연도의 회계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 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주계좌 및 주요 사업관련 계좌,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수지의 결산내용이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수입과 지출에 근거하여 적합하고, 또한 단체의 재무 상태와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타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 사항에 있어서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1월 25일 운영학 *운영학*

정관 개정(안)

1. 개정 주요내용

임원을 운영위원포함이 아닌 운영위원장만 포함시키기로 함. 7조 3항에 추가된 내용은 삭제 위임에 있어 포괄적위임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별 개별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정관 신규 대조표

정관 (현행)	정관 (개정)
제5조 [사업] 5.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제5조 [사업] 5. 정기 간행물 발행
제6조 [자격] 1. 정회원은 최근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거나 약정연회비의 50% 이상을 납부한 개인 회원으로 한다. 단, 타지역 이관 회원은 이관 즉시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 1. 정회원은 최근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거나 약정연회비의 50% 이상을 납부한 개인 회원으로 한다. 단, 타지역 환경운동연합에서 이관해온 회원은 이관 즉시 정회원으로 한다.
제7조 [권리] 3. 정회원은 총회에서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단, 정당의 당원이나 그에 준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	제7조 [권리] 3. 정회원은 총회에서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 [가입및탈퇴]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 한다	제10조 [가입및탈퇴]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른다
제11조 [임원의 자격 및 구성] 2.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제11조 [임원의 자격 및 구성] 2.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장, 운영위원장 , 사무국장
제24조 [총회의 기능] 3. 공동의장,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의 인준	제24조 [총회의 기능] 3. 공동의장, 운영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인준
제26조 [구성] 1.총회준비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하며, 의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26조 [구성] 1.총회준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며, 의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29조 [소집 및 의결] 2.안전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위임통지의 경우 포괄위임이 아닌 , 안전에 따라 한정위임을 한다	제29조 [소집 및 의결] 2.안전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위임통지의 경우 포괄위임을 원칙으로 하되 , 안전에 따라 한정위임을 한다

임원 및 운영위원의 구성 인준(안)

구 분	이 름	소 속
공동의장	조정	시인
고문	유재덕	전 공동대표
	황유성	전 공동대표
자문위원	김준봉	우석대 건축과 교수
	김경희	경기도의원
	김해련	고양시의원
	장석환	대진대 토목과 교수
운영위원장	박찬호	(주) 자인 대표
운영위원()	김석	소나무보호협회 (전 중등교감)
	마귀자	산황동주민 대책위
	박찬호	(주) 자인 대표
	안희철	(재단법인) 박애원
	윤영학	동넉평화센터
	정민경	나들목일산교회 사회선교팀장
	최은영	사람 나무
	정성남	고양환경련 회원
사무국장		

※ 가나다 순

※ 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 당연직 운영위원

2020년 사업계획(안)

1. 사업개요와 목표

■사업개요

- 1) 환경 및 생태계보존을 위한 각종 조사, 감시 및 정책대안운동
- 2) 회원배가운동과 회원조직관리
- 3)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유의 환경교육운동

■사업목표

- 1)지역의 전반적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및 발전적 방향을 제시한다.
- 2)회원배가를 통해 시민단체로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3)고양시민들에게 환경인식 교육및 홍보를 통해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사업

고양시 환경 및 생태계 보전운동

- (1) 도심 숲을 알리는 회원사업과 시민활동을 펼친다. - 생태탐방, 도심숲 걷기, 학교연계활동, 지역연계활동
- (2)고양시의 현안 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현안대응에 활용한다. 운영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조직
- (3)산황산 골프장증설 백지화를 위해 연대활동에 각 시민단체들과 함께한다. -산황산 걷기, 산황산 정화활동, 거리홍보, 피켓팅, 골프장 지하수 모니터링
- (4)한강하구 자연화를 시민에게 홍보 주변지역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간다.
- (5)장항습지보존을 알리는 회원사업과 시민활동을 펼친다.
- (6)3기 신도시계획의 대응을 위한 자료조사와 시민 연대를 구축 한다

■ 정책사업

1.현안

- 1)산황산 골프장 문제
- 2)3기 신도시 문제

2. 외래식물 제거 중장기 계획수립

- 1) 장항습지 외래식물 제거
- 2) 도촌천을 비롯한 소하천 외래식물 제거

3. 생태 하천 지키기

하천 모니터링을 통해 공릉천, 창릉천 현장조사와 문제제기를 통해 검증하고 중단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함

4. 안전한 생활환경 지키기

학교, 관공서 석면철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시민홍보

■ 회원 사업

1. 회원 배가운동

2. 고양환경운동연합회원 자체역량강화

(분기별 강연회 2회, 토론회 2회)

3. 신규 회원을 위한 분기별 별밤 캠프진행

4. 1박2일 여름 가족 캠프

5. 환경 그림책 읽기, 풍백산책, 환경책읽기, 환경영화 무료상영

6. 신입회원의 날 추진: 분기별로 하며, 회원가입시 카드와 배지를 주소로 보낸다

7. 후원의 날 행사: 고양시 환경후원의 날

8. 소식지 발간: 분기별로 년 4회 발간

9. 환경의날 행사

■ 전국 및 지역연대사업

- 전국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
- 전국환경운동연합 대표자회의
- 전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처)장단 회의: 격(짝수)월 1회
- 전국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워크숍
- 경기환경운동연합 대표자회의: 년2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처)장단 회의: 격(짝수)월 1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회의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 한강유역 네트워크

■ 교육사업

1. 교육

1) 개요

- 수업 기간 : 2020년 3월 1일 ~ 2020년 6월 30일(4개월)
8월: 캠프
9월: 수업의 결과물(교육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 한다.
- 수업 규모 : 총 4개 수업
- 참여 인원: 참여 예상 연인원 약 80명
-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는 초등과 중고등학생의 수업이 동일하나,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
주제는 곤충, 에코프로파일러, 조류, 동물, 식물로 구성 된다.
(2019년에 호응이 좋았던 야생동물교육과 창덕궁 후원의 수목 교육 재배정)

2) 세부 수업별 개요

- 초등 저학년: 3월~6월 월 2회 (1,3주 토요일 오전)
- 초등 고학년: 3월~6월 월 2회 (2,4주 토요일 오전)
- 중·고등 : 3월, 5월, 6월, 7월 -월 2회 (1,3주 토요일 오후)
- 시민 환경지킴이 :시민교육 + 운영위원, 시민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3월~7월 3주에 1회 (8회)
환경강사 교육 커리큘럼에 맞춰 교육내용을 구성한다

2. '환경운동연합 산황산 생태교실' 운영 : 산황산 탐방이나 정화활동 후 학습을 할 수 있다

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산황로 178-4

- 맨발 생태걷기

2020년 예산

1. 수입예산

비목	항목	2019 수입결산	2019수입예 산	2020수입예산	증감
회비	회비	41,263,630	52,000,000	45,000,000	
후원금	후원금	2,265,500	3,000,000	3,000,000	
기타수입	교육사업	2,376,400	9,000,000	3,000,000	
	지원사업	0	0	0	
	관리외수입	1,250,000 (사업비자기부담금반환)	1,800,000	0	
	잡수입	1,074,397	400,000	1,000,000	
	일자리안정자금	1,959,940		1,320,000	
	이자	1,968	6,000	2,000	
수입합계		50,191,835	66,206,000	53,322,000	
전년도 이월금		14,976,125		7,997,359	
총계		65,167,960	66,206,000	61,319,359	

2. 지출예산

비목	항목	2019지출결산	2019지출예산	2020지출예산	증감
인건비	활동비	27,922,870	31,200,000	31,200,000	
	퇴직금 충당금	2,133,570	2,600,000	1,800,000	
	상여금	0	400,000	400,000	
	4대보험	2,287,230	2,400,000	2,000,000	
	소계	32,343,670	36,600,000	35,400,000	
관리비	수도광열비	219,120	100,000	250,000	
	통신비	1,538,030	500,000	1,460,000	
	소모품비	727,970	900,000	900,000	
	관리비및입차료	2,970,000	2,970,000	2,930,000	
	교통비	620,100	1,350,000	700,000	
	지급수수료	138,741	200,000	150,000	
	복리후생비	100,500	100,000	100,000	
	비품구입비	284,100	0	300,000	
	사무실 환경개선비	637,200	0	0	
	도서인쇄비	2,141,800	0	2,100,000	
	운영비	685,000	0	700,000	
	지역지원기금	699,990		700,000	
	중앙분담금	1,440,000	2,600,000	1,440,000	
	mrm유저비용	104,500		66,000	
	출판홍보비	1,025,000	2,500,000	1,100,000	
	회의비	263,750	300,000	300,000	
	출장비	149,600	100,000	150,000	
	기타	1,040,980	500,000	1,000,000	
	소계	14,822,381	12,120,000	14,346,000	
사업비	교육사업비	3,287,150	12,000,000	4,295,000	
	회원사업비	4,832,580	4,000,000	6,800,000	
	연대사업	1,681,000	1,500,000	1,500,000	
	지원사업비	0	0	0	
	소계	9,800,730	17,500,000	12,595,000	
	예비비			500,000	
	지출합계	56,966,780	66,220,000	62,841,000	

•기타: 착오금반환,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CMS수수료

2019년 행사 사진

2019년 1월



지하철역 퇴근길 “산황산 골프장 직권취소” 피켓팅

2월



2/9일 산황동 땅 밟기

2/22일 고양환경운동연합워크숍

2019년 3월



3/12일 릴레이 텐트 농성 100일
기자회견



3/24일 행주강변 걷기

4월



4/13 세월호 참사5주기 고양시민 기억의 날

| 생명 | 평화 | 생태 | 참여 |

2019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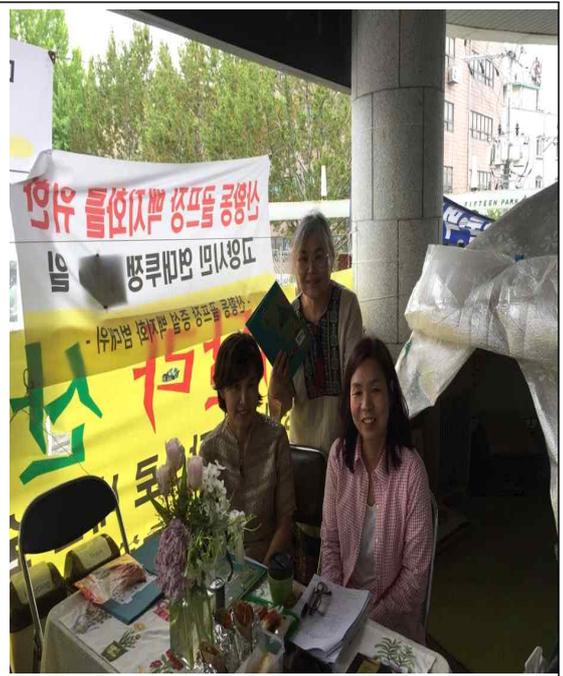


5/10 별밤체험마당-고양자유학교에서



5/24 산황산을 숲으로 문화제

6월



6/12 환경그림책읽기

2019년 7월



7/6 환경지킴이 에코프로파일러 수업



7/29 3기신도시계획에 대한 토론회

8월



8/9 시의회 앞 텐트 농성장에서
환경영화 상영



8/23 곤충의 한살이 수업 종강

2019년 9월



9/21 태풍에 피해를 본 경기도 1호
보호수 느티나무의 복구 촉구 기자회견



9/21 풍백산책-나희덕 시인과 함께

10월



10/11 백양초등 바자회-산황동 느티나무
우드코스터 판매



10/26 풍백산책-오디시 금빛나

2019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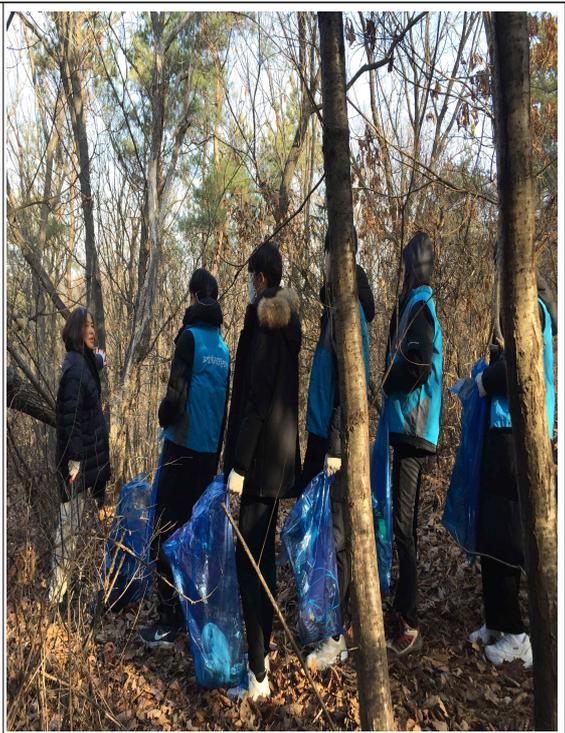


11/7 시민 환경지킴이 수업



11/16 풍백산책- 해금연주

12월



12/21 산황산 정화활동- 환경지킴이 학생들과 함께

언론보도 및 성명서

“환경단체 주민 힘 모아 650살 나무 살렸어요”

산황동 느티나무 회생기념 고천제 진행

방재현 기자 승인 2019.11.06 10:03

[고양신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일부가 부러졌던 '경기도 지정 고양시 제1호 보호수' 산황동 느티나무가 주민과 환경단체의 노력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 5일 산황동에서 650년이 넘는 느티나무의 회생을 축하하기 위한 고천제가 진행됐다. 고양환경운동연합 관계자와 마을주민 등 약 15여 명이 참석했다.

백석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신석현 목사는 “느티나무가 소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념하기 위해 오늘의 행사에 참여했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큰 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산황동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마을주민 대부분은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청년시기에 정착한 토박이다. 산황동에서 오래 살아온 만큼 이들에게 느티나무는 함께 자란 친구이자,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동반자 같은 존재다. “15살에 시집와서 이곳에서 쭉 살았어요. 내가 지금 84세인데, 70년 동안 이 나무를 봐왔죠. 나무가 벌어지고, 벗겨지는 과정을 매년 봤어요.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함께 나이들 수 있다니 너무나 좋아요.”- 김엄진 어르신

“(나무가 살아나서) 동네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전에는 매년 제사도 지내고 그랬는데 이젠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미적지근하네. 나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지만, 고양시에 이런 나무는 없을 거예요. 어렸을 적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잠도 자고 그랬어.”- 임순근 어르신

“숲이 어우러져야 나무도 살 수 있는 거지. 나무 혼자선 못살아요. 산황동의 녹지와 느티나무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도로나 골프장 같은 게 증설되면 이 나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무원들이 이런 걸 참고했으면 좋겠어.”- 익명을 부탁한 주민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나무가 부러지고 수술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주민들의 참여와 표현이었다. 우리의 진심이 통했기에 나무가 살아났다고 생각한다”며 “고양시와 시민들이 느티나무를 지켜야 한다는 걸 느꼈다는 것도 감사하다. 가지 두 개가 부러졌지만 앞으로는 더욱 잘살 수 있을 것”이라며 나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9월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부러지면서 시 공무원, 환경단체, 주민들이 힘을 합쳐 나무를 살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부러진 단면을 잘라내고 접합을 진행하는 등 민·관이 협력을 통해 두 달여 만에 나무를 소생시켰다.

태그

방재현 기자 webmaster@mygoyang.com

“고양시는 道 보호수 1호 느티나무 살려내라

고중오 기자 2019.09.15 20:27

환경운동연합·상황동 주민들
“태풍 링링으로 가지 부러져...
市 안일한 대책에 발생한 인재”

고양시에서 700년 된 느티나무가 이번 태풍 링링으로 가지가 부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시민들이 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양시 관내 느티나무를 아끼는 환경운동연합과 산황동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시가 방치하다시피 한 산황동 느티나무가 이번 태풍에 가지가 부러지는 등 만신창이가 됐다”며 “700년 가까이 의연했던 나무를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과 함께 시의 안일한 대책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15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 나무는 2016년 내셔널 트러스트가 ‘보전해야할 우리 유산’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산황동 느티나무의 수난은 10년 전 개장한 인근 골프장으로 인한 지하수 부족으로부터 시작, 고양시의 부실한 보전조치로 인한 영양 부족과 보호 장구 부족 등으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십 년간 느티나무 보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시는 문제없으며 전문가가 괜찮다고 한다며 방관 했고, 또 마을 주민들이 느티나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부서마다 책임을 회피하기가 다반사였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이어 “현재 느티나무의 주요 가지 중 하나가 완전히 부러졌다. 미리 기둥을 세우고 철근으로 고정했다면 무사했을 것”이라며 “보호수 1호로서 남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가지가 부러져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또 “아직 물관부가 살아있는 만큼, 시는 반드시 되살리도록 노력해 줄 것과 남은 가지 중에도 치료가 필요한 가지들이 있는 만큼, 보호를 위해 느티나무 보전을 위한 TF팀을 꾸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특히 지난 봄, 대대적으로 나무관리선언문을 발표하며, 호수공원에 대리석 비를 세워 나무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나무로부터 깊은 정서적 위로를 받아온 마을 주민들의 조언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반듯이 경기도 보호수 1호인 느티나무를 살리고 보호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고중오기자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나무를 죽이는 다양한 방법... 숲 살해자는 누구?

[고양시 산황산 파괴에 어린 비정과 서정 ③] 드릴로 구멍 뚫고 제초제 부어

[오마이뉴스]

최종 업데이트 19.12.14 11:17 | 조정(orengrium)

경기도 고양시 산황산 훼손은 올해 처음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2016년 2월 말, 산을 살피던 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눈을 의심할 풍경을 발견했다. 산신제 터 아래 40~50년 이상 된 참나무 열한 그루가 밀동만 남긴 채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전기톱에 잘려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루터기 앞에서 회원들은 망연자실했다. 같은 날 산의 남쪽 소나무 숲에서는 불이 났다. 당시 산불 감시원의 말이다.

"나이는 60대 중반에 키가 170쯤 되는 남자가 산으로 올라간 뒤에 불이 났어요. 내가 신고 해서 소방 헬리콥터가 한 시간 정도 진화했어요."

화재 현장을 살펴본 주민들은 고의 방화로 추정했다. 골프장과 꽤 떨어진 위치인데 불에 탄 골프공이 현장에 남아있어서 기이했다.

지난 9월에도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인위적으로 고사시킨 흔적이 있는 나무들을 조사했다. 우거진 미국오염딸기 가시에 굽히며 고사한 나무들을 촬영하고 밀동 부근 흙을 채취해 담은 과정은 상처받은 숲에 대한 사죄이기도 했다.

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내서 제초제를 붓거나, 밀동 껍질을 벗겨 고사시킨 나무들을 조사한 후 고양시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참가자인 박찬호 고양환경운동연합 정책분과장의 말이다. "고사된 나무 대부분이 소나무였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선충이나 다른 병해충 같지 않지만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양시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2개월이 지난 11월 19일 오후, 영상 촬영을 위해 다시 찾아간 산은 9월과도 달랐다. 심각하게 난도질당한 상태였다. 훼손 범위가 산 전체일 뿐 아니라 고사된 나무들을 베고 뿌리를 뽑는 등 증거 인멸 시도까지 보였다. 산림 입목축적도 조사에서 베인 나무도 5년까지 산 나무와 똑같이 계수되기 때문에 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루터기 하나도 소중한데 말이다.

밀동 껍질을 벗겨 고사시킨 나무, 뿌리 쪽에 약을 붓고 손도끼로 찍어 넘어뜨린 나무, 연장으로 몸통을 파내고 약을 넣은 나무, 손도끼로 찍어서 두 갈래로 꺾은 나무 외에 막무가내 베어버리거나 밧줄을 걸어서 가지를 부러뜨린 나무들이 산재했다.

지난 3월 28일 호수공원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나무권리선언식에서 "수령 30년 이상인 나무의 별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선언하던 고양시장의 엄숙함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우수한 산림, 왜 3개월 만에 '훼손' 판정 내렸나

[고양시 산황산 파괴에 어린 비정과 서정 ④] 산황산은 훼손지 아니다

[오마이뉴스] 최종 업데이트 19.12.13 11:59 | 조정(orengrium)

지난 11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산황산 나무 훼손을 막기 위해 고양환경운동연합 임원들과 일산동구청 공무원들이 동행 조사에 나섰다. 환경녹지과 공무원이 물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현장을 보지 않았으니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숲이 훼손되어야 유리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고양시가 그린벨트 지키려는 의지를 안 보이면 이런 행위는 지속될 겁니다."

산림청은 지름 10cm인 나무 1그루가 공기청정기 10대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다. 대기질 정화, 정수와 담수 기능, 토사 방지, 기온 조절, 생태 고리 역할, 정서 순화 등 숲의 순기능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무상으로 받는 천혜의 선물을 평소에는 잊고 있을 뿐이다.

산황동 주민인 이용진 노인은 숲의 혜택을 체험하며 사는 농민이기 때문에 저절로 목소리가 높아진다.

"저 산에 있는 낙엽들이 다 댐 역할을 해서 홍수를 막아주고 그렇게 저장된 지하수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저 산을 없애면 수맥이 끊기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어. 주민 의견 무시하고 골프장만 하려고 들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야!"

산황산이 왜 이렇게 수난을 당하는 걸까? 거리에서 골프장 반대 서명을 받을 때 시민들은 자주 질문한다.

"도심에 자리 잡은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 개발이 가능합니까?"

물론 불가하다. 다만, 2011년 12월 1일 이전 접수된 사업 중,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 관리를 위한 골프장이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사업자가 개발하고 싶은 산을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주장한 제안서를 내고, 고양시장이 그 주장에 동조하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는 법규의 열쇠는 '훼손지 여부'라는 말이다. '환경오염 종합선물세트'라고 하는 골프장마저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는 '편법의 틈'이 '훼손'에 있고, 훼손 여부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

2013년 6월, 산황산은 '훼손되지 않은 우수한 산림'으로 국토부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골프장 증설 사업 제안을 제출했고, 중도위는 다음 사유로 부결했다.

"산황산은 우수한 산림으로 소수의 골퍼에게 내줄 수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골프)을 부결한다."

그런데 불과 3개월 후 중도위는 '산황산은 훼손된 그린벨트이므로 도시관리계획 골프장 변경을 가결한다'를 결정했다. 고양시 거주자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여러 번 했던 조교수는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의아해했다.

"부결된 사안이 단기간에 거듭 제출되면 그 사안은 제외하고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현장도 기준도 불변인데 어떻게 결과가 바뀔 수 있겠어요?"

시민들은 조사를 통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1. 이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뇌물 수수 기소되었던 공무원 C씨의 판결문. C씨의 변호인은 '다른 공무원들도 뇌물을 받았다. 골프장 증설 승인과정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던 국토부의 W를 비롯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피고만 처벌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변론을 제기했다. 국토부 공무원 W의 뇌물수수의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2. 퇴직한 고양시 도시계획과 김용섭 전 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우리는 왜 가결됐는지 모른다. 사업자가 탄원서를 중도위에 냈기 때문이다." 관리 주체로서 모든 서류를 검토 후 국토부에 전달하는 고양시가 사업자와 국토부에 책임을 미룬 셈이다.

"산황산이 좋은 그린벨트고 골프장 경계선이 주택 30여 가구와 겹치는데 고양시는 왜 입지타당성 검토 시 반려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적법했다"고만 답했다. 고양시는 보관 중인 탄원서 공개 요청을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개발의 열쇠는 '훼손지' 여부

만일, 만 그루 이상 나무가 청청하게 서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지로 조작해 골프장이나 자동차전용도로를 개발한 지자체가 있다면 승인권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곧 산을 살해한 당사자라 할 수 있다. 훼손지 조작 사실이 시민들의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으면, 산황산도 2015년 12월 31일 골프장이 준공되고 산은 사라졌을 것이다.

훈령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조의 '훼손지' 정의에 의하면, 산황산은 훼손지가 아니다. 골프장 사업 제안서에는 증설부지 28만㎡ 중 53%가 분묘, 비닐하우스, 농장 등으로 훼손된 상태로 기록되어있다. 네이버 위성 지도만 보아도 이것이 허위사실임을 알 수 있다.

마을 주민의 반대 민원에 대한 답변서에는 생활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고 분묘가 700여 기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2월, 주민들이 조사한 결과, 폐묘 상태인 분묘 23기를 포함해 총 172기가 있을 뿐이었다. 이마저도 100여 기는 산자락의 박씨, 장씨, 정씨 문중 선산에 집중 분포한다. 분묘가 숲 자체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여론이 산황산 보전을 원하고, 고양시장 역시 '파리기후협약 준수'를 고양시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훼손지'가 아닌 산황산을 복구하는 데는 건축물, 공작물 제거조차 불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임목보육(林木保育)을 하는 육림(育林) 조치만으로 충분하다. 같은 훈령 제6조, 복구되어야 할 훼손지의 조건에 다음 항목이 있다.

- 다.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
- 라. 도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차단녹지, 완충녹지, 시설녹지 등 녹지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거나 광역녹지축, 도시녹지축 등의 기능이 큰 지역
- 3. 대중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도시민의 여가이용이 가능한 지역

고양시장의 공익성 판단 기준, '나무권리선언'이어야

"골프장에서도 증설 후에 어린이 무료 골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공익성이 있어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지난 5월 1일, 범대위 관계자가 고양시장에게 산황산 파괴를 막기 위한 공익성 판단을 잘해달라고 요청하자 나온 시장의 답이다. 고양시장은 시민 다수의 생존이 걸린 문제보다, 사익 극대화를 위한 소소한 프로그램에 큰 공익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부끄러움은 수준 낮은 답을 들은 시민의 몫이었다.

금년 3월 28일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고양시장의 '나무권리선언문' 선포와 나무권리선언 기념식 개막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고양시장은 TF팀이 8개월간 정리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시장이 전국 지자체 최초라고 자랑한 나무권리선언은 산황산 28만㎡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까? 고양시장이 역사적인 나무권리선언을 산황산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짱 속임수다.

고양시장의 실천을 기대하며 시민들은 이번 주말에도 쓰레기봉투와 집계를 챙겨 들고 산황산 정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자연 숲 보전은 우리 시대의 과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환경단체 “그린벨트 훼손하는 3기 신도시 철회해야

박근홍 기자 승인 2019.05.23. 15:13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방침에 1·2기 신도시 주민들에 이어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부지 면적은 총 3429㎡로, 특히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각각 97.7%, 99.9%가 그린벨트"라며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 개발 목표가 집값 안정이라면 공적장기임대주택을, 주택난이 목적이라면 기성시가지의 자족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광역교통망 선진화와 자족도시 역시 3기 신도시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이 명분은 1·2기 신도시 개발 공약이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 주택 정책의 난맥상을 풀 해답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은 지방의 수도권 인구유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의 자족성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 할 정부가 강남 집값 잡자고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선 안 된다"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투기와 가계부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다. 3기 신도시도 뻥튀기 투기가 예상된다. 이제는 더이상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 단 한번도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실천한 적이 없다. 그 부작용으로 1·2기 신도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시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현명한 도시관리를 추진하라는 매우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제 국토부는 시민주도 상향식의 도시성장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의 지속불가능한 제3기 신도시는 327km²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도시 녹지와 논습지는 택지개발 유보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린인프라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울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등이 3기 신도시 관련 지역현안 발언을 위해 참여했으며, 일산신도시연합 등 1·2기 신도시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환경단체, 창릉 신도시 지정 “절대 반대

고중오 기자 승인 2019.05.21. 19:46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고양지역 환경단체가 3기 신도시 지정을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정부에 고양 창릉 신도시 지정 재고를 촉구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창릉지역은 정부가 발표한 813만㎡ 중 790만㎡(97.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울과 고양시 사이에 최소한으로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훼손된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18년 기준 고양시 쓰레기는 10만t 이상으로 이중 6만 848t만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되고 나머지는 매립되는 상황에서 신도시 건설로 3만8천가구가 들어오면 현재 시설만으로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화상태인 쓰레기 소각시설, 하수처리장의 오염원 증가 등을 감수할 수 없다”며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10만 명 이상의 인구와 구조물들로부터 각종 쓰레기와 오·폐수 등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의 신도시 교통난 해소방법으로는 현재의 교통난도 해소 못하고 출퇴근길 정체로 고양시가 경기 서북부의 ‘교통 계토’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고양시가 실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을 보전하기 위해선 서울과 고양시 사이에 남아있는 최소한의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훼손된 그린벨트를 육성해야 한다”며 “실패한 주택정책을 수습하기 위해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많은 계획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도 원자연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의 짐을 고양시민과 고양시 생태계가 감수하는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io@[웹툰] 충격! 강력계 형사 수사 중 현금다발 발견...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http://www.kgnews.co.kr)

골프장, 신도시...산황산이 위험하다

산황산 자연과 주민 모두를 위협하는 골프장 증설...3기 신도시 새 도로 관통, 길인가 흉인가?

김봉운 기자 승인 2019.09.04. 11:24

환경부와 에코맘코리아는 생물자원 보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생물다양성 그린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된 '생물다양성 그린기자단'이 직접 기사를 작성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8편의 선정된 기사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그린기자단] 서희주 학생 = 하얀 뭉게구름이 드리운 파란 하늘 아래, 거대한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 주위를 빙 둘러선 완만한 산등성이를 보고 있노라면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때, 한적한 풍경 속에서 쇠백로가 그림처럼 새하얀 날개를 펼치며 날아와 시냇물 위로 내려앉는다.

위와 같은 풍경이 아파트와 자동차로 가득한 도시 한가운데서 펼쳐진다면 믿겠는가? 고양시의 중심에 위치한 산황산 일대, 그곳에 가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실제로 펼쳐진다.

고양시의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 산황산

고양시 풍동, 주교동, 식사동, 마두동, 백석동 한가운데 위치한 산황산은 크기는 작지만 고양시의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로서 도시 숲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콘크리트 빌딩, 자동차 매연, 미세먼지로 가득찬 도시에서 곳곳이 버티며, 동식물에게는 깨끗한 삶의 터전을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쉼터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산황산에 닥친 위기...주민과 자연 모두를 위협하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이러한 산황산이 골프장 증설로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산황산 근처에서 기존 9홀로 운영 중이던 골프장 사업자 측이 규모를 18홀로 증설하겠다고 고양시에 산황산 부지 용도 변경 제안을 제출했고, 2014년 고양시에서 이를 승인한 것이다.

이를 안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했고,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벌써 몇 년째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골프장이 증설될 경우 산황산 자연과 지역 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산이 깎여나가 자연녹지가 파괴되면 그곳에 움튼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짐은 물론이고, 나무가 베어지면 나무에서 떨어져 쌓인 낙엽이 담당하던 자연적인 댐 기능조차 없어지고 만다. 언제 지하수가 범람해 홍수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자연녹지를 없애고 심은 골프장 잔디 위에는 농약을 필수적으로 뿌려야 한다. 문제는 골프장 증설 부지에서 150만 주민이 마실 물을 공급하는 고양 정수장까지의 거리가 채 300m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정수장 물을 오염시킬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산황동에는 농가가 대부분인데, 골프장 농약은 농민들에게 있어서도 큰 골칫거리다.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과 종류가 다른 골프장 농약이 바람에 실려 농작물에 닿게 되면, 로컬

푸드 심사에서 탈락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골프장 잔디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2008년 9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선 후에도 지하수를 빼가는 바람에 복분자 열매가 익지 않고 말라버리는 등 산황산이 건조해졌고, 그 영향으로 습지가 없어져 양서류 개체 수가 감소했다.

그런데 18홀로 증설해 지하수 사용량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농가에 필요한 물조차 부족해질 수 있어 농민들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곳에는 이성계의 명을 받아 무학대사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650년이 넘는 전설의 느티나무가 존재한다. 생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이 나무도 지하수가 부족해지면 말라버릴 위험이 높다.

이렇듯 산황동 골프장 증설이 인근 주민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함에도, 2018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환경부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은 사업자가 제작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허위와 부실로 점철되어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내용도 협의를 위한 협의일 뿐 시민 피해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게다가 과거 골프장 증설 허가 과정에서 고양시 공무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되는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고양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이미 상실된 상태이다. 골프장 증설을 막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고양시장의 직권 취소를 요구해오고 있으나, 2019년 6월3일 고양시는 직권으로 폐지하기 위한 명백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산황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최근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3기 신도시의 자동차전용도로가 산황동 골프장 증설 부지를 일부 관통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를 놓고 골프장 증설이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나아가 골프장 증설이 무산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에는 도로 건설로 인해 산황산이 몸살을 앓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 주민들에게는 생태 복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 건설로 쫓겨난 생물들에게는 안전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산황산을 영구녹지화해 보전하는 것이다. 산황산이 자아내는 아름답고도 한적한 풍경을 오래도록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1호 보호수, '용뿔'의 게임

[고양시 산황산 파괴에 어린 비정과 서정 ①]

[오마이뉴스] 최종 업데이트 19.10.31 13:28 | 글: 조정(orengrium) 영상:문성준(justsee11)

거리에 버려져 고독사할 뻔한 노인을 따뜻한 방에 모시고 치료를 마친 후의 평화가 이런 것일까?

3회에 걸친 임시봉합, 접합수술, 봉합수술, 가지치기를 마친 후 가지마다 지지대를 받쳐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의 느티나무가 안정을 되찾았다.

일산동구 산황산 자락에 있는 수령 650년 된 느티나무는 경기도 보호수 1호다. 밑동이 9.2m, 키가 12m나 되는 전국에서도 드물게 보는 노거수이다.

보통 지자체들은 수령 500년 안팎 노거수의 자녀목을 길러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나무를 지속시키려 노력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일산동구 산황산 일부를 골프장으로 조성했다. 골프장 증설에 몰두한 나머지 시는 신목이 다 된 느티나무를 방치했다. 노거수로부터 150여 m 위치에 골프장이 들어온 후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으로 자주 나뭇잎이 미발육 상태를 보여도 "나무와 지하수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주장했다.

골프장을 느티나무 30m 가까이 증설하겠다는 고양시와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치해온 지 6년인데, 지난 추석 전 불어온 태풍에 노거수의 주가지와 '용뿔' 가지가 부러지고 꺾이고 만 것이다.

산황동 느티나무 가지가 부러지다

9월 8일 아침, 서해안을 타고 북상하던 태풍 링링은 드디어 고양시권에 도착했다. 링링이 공중을 한 번 휘돌 때마다 시청 안팎 나뭇잎들이 날아올랐다. 나뭇잎들이 검은 새 떼처럼 공중을 유평하다가 한 곳으로 세차게 몰려가 곤두박질 때의 풍속은 공포감이 들 정도였다.

시장실 창밖 포치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가 굴러떨어졌다. 모래주머니며 의자, 물통을 묶어둔 골프장 백지화 농성 텐트도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잠깐 스쳐 가는 걱정이 있었다

'산황동 느티나무는 괜찮을까? 뭐 괜찮겠지, 650년 만고풍상을 버텨온 노장인데.'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9월 12일 오전 산황동 주민 미정 아빠가 문자를 보냈다.

"느티나무 가지 하나는 완전히 부러졌고 하나는 꺾질이 아직 조금 붙어 있어요. 이거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자르라고 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400년은 된 주가지가 몽땅 떨어져 이미 토막 쳐졌고, 주민들이 '용뿔'이라 부르는 가지는 한

쪽 물관부만 붙은 채 꺾여 있었다. 가슴이 멍멍하고 아렸다.

"주민 센터, 구청, 시청 다 전화해도 서로 자기 담당 아니라고만 해요."

평소 보호수 가지에 지지대 세워 달라던 우리의 말을 듣지 않던 고양시의 오불관언이 부른 인재였다. 지역구 김경희 도의원과 김해련 시의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점심시간 후 그쳤던 비가 다시 내렸고 고양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들, 시민들, 공무원 두 명이 현장에 왔다. 현장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명절 앞둔 실무자들 입장과 속히 돌봐야 할 가족 같은 생명체를 앞에 둔 입장이 부딪쳐 소란한 의사 소통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양보해주었다. 현장에 선 채로 이곳저곳 연락을 취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일을 진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 닳터가 왔고 크레인이 왔다. 부러진 가지의 잘린 밑둥을 소독하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임시로 봉하는 동안 크레인 엔진 소리가 요란했다.

꺾인 '용뿔' 가지의 접합수술은 이튿날 오전 8시에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용뿔이 살아났다

추석 귀경 움직임이 시작된 9월 11일 오전, 우리는 느티나무 아래로 모였다. 다행히 날씨는 쾌청했다. 무게를 덜기 위해 잔가지들을 쳐내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데 가지에서 '빠직' 소리가 났다. 놀란 이들이 "조심해" "살살"을 외쳤다. 오전 8시에 시작한 접합 수술이 오후 12시를 넘겨서야 끝났다.

나무 위, 크레인 위, 나무 아래에서 10여 명이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줄이며 일할 때 마을 할머니들은 '저게 잘 되려나'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들어 올린 가지 단면에 소독약을 바르고 접합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밧줄을 묶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나뭇가지는 언제 꺾였을까 싶게 멀쩡해졌다.

달나라 가는 일만큼이나 나무를 되살리는 의술도 대단했다. 고생한 공무원, 노동자들, 주민들, 고양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들이 서로를 칭찬하며 '용뿔' 앞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 '나무야 힘을 내다오'라는 기원을 품고.

추석 연휴 지나 용뿔의 생사를 확인하러 가는 날은 조금 초조했다. 막상 도착해보니 공연한 걱정이었다.

접합 수술한 가지의 잎사귀들이 생생한 초록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는 게 아닌가. 살아난 것이다.

공무원들은 봄까지 지켜보아야 안다지만 마을 주민들은 "저 정도면 죽을 일은 없어"라고 말하며 기뻐했다. 말수가 적은 주민도 환한 얼굴로 "오늘 하루를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라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지자체 수장들을 대상으로 행정 감수성을 측정한다면 고양시장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수백 년 역사를 배경으로 고양시 도심에 살아남은 마을 공동체의 환경 공익성을 외면하는 고



▲ 일단 수술은 끝났다 달나라 가는 기술보다 우리에게는 나무 접합 기술이 더 위대해 보였다. 접합 수술 직후 기뻐하는 주민들과 관계자들.

양시장이 느티나무의 팔 하나 살아난 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쁜 주민들과 공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번 느티나무 복원에 고양시 공무원들이 노력해준 점을 고맙게 여긴다. 앞으로는 '보호수를 보호수답게 관리할 계획'이라니 기대해본다. 큰 팔 두 개를 태풍에 자르면서 근원적인 보호를 불러낸 느티나무 할아버지의 지혜가 산황산을 살릴 것이라고 기대해 보기도 한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속담이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 것 아닌가 싶다. 산황동 주민들과 이웃 마을 시민들은 이제 느티나무 할아버지 회복을 기념하는 고천제를 준비하고 있다. 손 없는 날이라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느티나무 할아버지와 고양시민들이 가을별 가득한 마을 잔치를 벌일 모양이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계획 취소수순 밟나?

백석~서문도로 연결도로 계획 골프장 증설부지 통과 예정

남동진 기자 승인 2019.05.30 10:50



범대위 측은 30일 '산황산 골프장 취소를 환영한다. 결자해지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골프장 취소를 위해 고민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준 고양시장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도로계획 발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산황산 골프장 증설 도시관리계획 폐지 수순에 임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고양신문] 7년간의 반대운동과 6개월 천막투쟁을 이어온 산황산 골프장 증설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이번 3기신도시 교통대책방안으로 발표된 백석동~서울문산고속도로 연결도로노선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예정 부지를 통과하게 된 것. 이로서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일었던 산황산 골프장 증설계획은 사실상 취소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3기 창릉 신도시 발표와 함께 교통대책으로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신설계획(1.2km, 4차로)을 발표했다. 국토부에서 나온 노선도에 따르면 도로는 백석동을 지나 산황동 일대를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장 측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노선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발표한 도로가 골프장 증설 예정 부지를 지나는 것은 맞다"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인 만큼 노선이 확정된다면 골프장 증설계획은 취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백석~서울문산 연결도로의 구체적인 노선계획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통해 확정되며 그 시점은 이르면 내년정도로 접쳐지고 있다. 도시계획분야 관계자는 “증설부지를 지나는 도로면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될 수도 있고 부지 전체에 대한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한 관계자 또한 “골프장 사업자의 회생인가도 기각된 상황인데다가 도로계획도 발표됐으니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겠느냐”며 골프장 증설취소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현재 시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중인 범대위 측에 철거요청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대표는 “지난 17일 시장측으로부터 ‘산황산에 도로가 계획되어 골프장이 취소될 테니 농성텐트를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범대위 측은 증설취소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절차 등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대표는 “도로계획을 이유로 골프장 증설을 취소한다는 것은 골프장의 불필요성을 시장이 인정한 것 아니냐”며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토부 결정에 물어갈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폐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목사들은 왜 매주 목요일 고양시청에 모였을까

[오마이뉴스](#) 원문 입력 2020.01.13 11:24

[고양시 산황산 파괴에 어린 비정과 서정 ⑤] 리우환경선언에 답하는고양시 '녹색교회들 '

2019년 12월 31일 오후 8시, 두툼하게 방한복을 챙겨 입은 사람들이 고양시청 마당으로 모여 들었다. 제과점에서 케이크가 배달되고, 뒤이어 도착한 백설기 두 상자를 식지 않게 덮어둔 사람들은 시민불복종 텐트 앞에서 큰 물통에 작두콩차를 끓였다.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준비였다. 기온은 영하 7도,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오후 9시가 되자 50여 명이 모였고, 나들목일산교회 유형석 목사가 예배 시작을 알렸다.

첫 기도문은 본회퍼 목사의 <선한 능력으로>였다.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떨림 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들의 고난받는 이웃은 파괴 위협 앞에 놓인 산황산(일산동구)이며, 거기 깃들어 사는 많은 생명과 주민들이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아침이슬'을 부르는 시민들 ▲ 2019년 12월 31일, 50여 명 시민이 시민불복종텐트 앞에 모여 산황산 보전을 기도했다. © 조정

아프게 출발한 '목(木)요기도회'

"밟지 마세요! 사람이 밑에 있어요. 위험해요!"

"가슴 만지지 마!"

2018년 12월 3일, 여성들이 비명을 질렀다. 남성들은 공무원들이 여성들을 상해하지 않도록 떼어 놓았다. 80대 후반의 마을 노인들이 밀쳐지고, 척추장애인인 60대 여성이 텐트 밑에 깔려 갈비뼈를 다쳤다.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고양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계획 직권취소' 요청을 요구하며 고양시청 현관 앞에 기습적으로 텐트를 설치했다. 당시 현장을 지키던 공무원 30여 명은 자동식 텐트가 설치되자마자 해당 텐트를 찢고 범대위 측을 진압했다. (관련기사 : '정수장 옆 골프장 증설 반대' 고양시민들 단식 이유 <http://omn.kr/1gm00>)

과잉 진압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분노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농성자 건강 문제와 농성 장기화에 따른 민원 불편을 이유로 5일 아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일상에서부터 평화를 시작해야 할 때, 고양시장은 재임기간 중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과 대화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추위에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시청의 로비를 내어주면 될 일이다. 시청사가 고양시장의 것이 아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경기도 상임위원장)

찢어진 텐트에서 혼자 단식하던 여성을 공무원 백여 명이 휴대폰을 들고 따라오며 촬영했고, 이후 시민을 거리로 끌어내렸다. 텐트와 집기가 시청 앞 거리에 팽개쳐진 날,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민 7명을 업무집행방해치상, 퇴거불응으로 고소했다.

"전임시장이 저질러놓은 일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소통 노력을 계속 묵살하다가 이렇게 폭력으로 대응하는 고양시장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정원, 방송작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시민단체 대표들과 나들목일산교회 교우들이었다. 어린 아기를 감싸 안고 온 이들도 여러 명이었다.

얼어붙은 길에 침낭과 돛자리를 깔고 아이들을 감싸서 앉은 후, 낮 12시부터 기도회를 시작했다.

오후 8시에는 시민들 접근을 막기 위해 시청 현관에 올려둔 자동차 두 대 앞에서 수요예배를 열었다. ('기독교대책위' 결성 후 목요일 오후 8시로 변경)

환경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고양시 시민불복종운동이 새로운 페이지를 쓰기 시작한 날이었다.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목사들이 가장 앞에서 막겠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기도회를 하는 시간, 고양시장은 시정연수원에서 산황동골프장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의 요지다.

'골프장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취소할 수 없다. 시민들이 한파에 건강을 상할까 걱정되어 텐트를 철거했다.'

그러나 영하의 칼바람, 삼복의 무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해온 시민들은 알고 있다.

- 양호한 산지를 훼손된 산지로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미제출 등 골프장 승인 과정에 불법행정이 있다는 것.
- 2012년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사례를 통해 고양시장 또한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
- 150만 명이 먹는 수돗물 정수장 인근 골프장 설립은 주민 생존권이나 시민 환경권에 비해 공익성이 없다는 것. (관련기사 : 우수한 산림, 왜 3개월 만에 '훼손' 판정 내렸나 <http://omn.kr/1luqs>)

21세기 인류는 현재 '병든 지구 치료'라는 종말론적 과제를 공유한다. 리우환경선언은 세계 여성과 청년들에게 특별히 요청했다.

'여성은 환경관리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원칙 20조)

'세계 젊은이의 창조력 및 용기가 지구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결시켜야 한다.'(원칙 21조)

고양시의 5개 교회는 이 요청에 답하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 교인들을 이끄는 목회자들과 퇴근 후 발걸음을 기도회로 옮기는 교우들의 녹색 연대가 힘차다.

나들목일산교회(이진아, 유형석 목사), 동녘교회(김경환 목사), 백석교회(신석현 목사), 성공회 일산교회(김병내, 김은경 신부), 주날개그늘교회(남오성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산황산 문제로 다시 폭력을 가하는 일이 생기면 목사들이 가장 앞줄에서 막겠습니다."

그들은 산황산 보전이 결정되는 날까지 목요일 오후 8시, 고양시의회 입구로 모일 것이다.

그곳에 '산황산'을 보전하기 위해 6년째 싸워온 시민불복종텐트가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송구영신 예배에 모인 사람들은 평소와 똑같은 기도문을 읽었다.

역사에 함께 하시는 주님! 고양시에 다음과 같은 우리의 바람과 외침이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서 숲과 녹지를 빼앗지 않기 바랍니다.
- 사람들이 숲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사멸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 동식물의 보금자리를 없애고 인위적으로 멸종 위기를 조장하지 않기 바랍니다.
- 사람들과 자연생태계가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바랍니다.
- 산황산 자락에서 오랜 세월 살아가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해치지 않기 바랍니다.

조정 기자(orengrium@naver.com)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시민 릴레이 천막투쟁 100일 기자회견

지금 우리 앞에 휘날리는 고양시청의 태극기들은 100년 전의 3.1 항쟁을 기리고 있다.

저 깃발 하나는 기미년 선진들의 자주독립정신이며, 저 깃발 하나는 생명 가진 존재들의 평등에 대한 주장이고, 저 깃발 하나는 인류보편의 천부인권에 대한 외침이었다.

저 깃발들에 담긴 지향은 이후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으로 면면히 이어져왔다.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6년 투쟁, 100일 릴레이 농성 역시 다수 시민의 고통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 자본과 공무원들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인권과 생존권을 사수하며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국민적 염원이 모였던 2016년 광화문 광장의 담론을 고양시민들이 자기 삶속에서 실천하는 내용이 바로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운동이다.

반면, 고양시장과 공무원, 지역 정치가들이 산황동 골프장 문제 앞에서 드러내는 반시민적 태도는 적나라한 ‘적폐’의 현신이라 할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고양시민들은 산황동 골프장 배후의 위법과 유착, 환경 피해를 찾아냈고, 우리 아 이들이 마실 물과 공기가 위협적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애를 써왔다.

‘시민이 갑인 사회’ ‘사람 공동체 우선’ ‘도심 녹지 확장’이 말로만 생색내는 여론 호도용이 아니고, 공복으로서 진정성과 헌신을 약속하는 공약이라면, 이재준 시장은 다음과 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천해야 한다.

“전임시장이 입안한 도심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폐지하라!”

회생 심사는 진행 중인데 당선 이후 철저히 범대위를 회피해온 이재준 시장의 불통으로 인해, 작년 12월 초 시민들은 소통을 읍소하며 한파 속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폭력 진압하는 건장한 공무원들에게 폭행과 추행을 당한 여성 시민들을 표적 신고하여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퇴거불응, 폭행 등으로 형사 입건되도록 공조한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한파에 건강을 상할까 염려되어 텐트를 철거했다는 말로 여론을 호도했다.

심각한 환경피해를 야기할 골프장을 막느라 고생해온 시민들에게 속히 몰염치를 사과하고 형사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기왕에 부도가 난 골프장을 인수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환경감수성과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통찰을 기대했던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은 이재준 시장의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패소 근거도 분명치 않은 행정소송이 두려워서 한 마디 의지 표명도 하지 못한 채 시민들을 피하고 거짓으로 몰아세우고 법리적으로 압박하는 일은 역천자의 행위다.

민심이 천심이다. 시민들은 정수장 앞 골프장, 인가를 치고 들어오는 골프장 대신 도심 숲확보를 촉구한다.

우수한 수목림 15만평과 슬로시티를 능가하는 명품 농촌마을을 도심에 확보하여, 기후변화와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봉합하는 이재준 시장의 덕치를 기대하며, 깨어있는 고양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시민 주권과 환경기본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12일

산황동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이재준 시장은 실천으로 진정성을 입증하라!

이재준 시장이 취임 1년 동안 했던 말 중 가장 탁월한 통찰과 뛰어난 생명철학을 표현한 말은 단연 나무권리선언이다.

이재준 시장은 전국 최초의 나무권리선언 7개 조항을 틀에 새겨 호수공원에 세웠다. 우리는 오늘 고양시 어린이 시민들의 목소리로 나무권리선언을 다시 선포한다.

제1조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서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조 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

제5조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조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재준 시장이 나무의 권리 뿐 아니라 인권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을 것으로 믿는다.

나무권리선언문의 나무를 ‘산황동 주민’으로 바꾸어 읽으면서 인권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제1조 산황동 주민은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 산황동 주민은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서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 산황동 주민은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조 산황동은 주민이 모여 만든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체입니다

제5조 산황동 주민은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 고양시민과 산황동 주민은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조 산황동 주민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 선언문을 통해, 이재준 시장이 도심숲인 산황산을 보전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이재준 시장이 공익성 판단에 대한 궤변을 버리고 산황산을 골프장이나 도로 계획으로부터 보호하기를 부탁한다.

고양시를 책임진 시장으로서 산황산 도로 계획에 동의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바란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역점사업이 녹지 확장이라고 외친 발언의 진정성을, 산황동골프장 직권취소로 입증하기 바란다. 환경감수성을 내세워 얻은 표가 많기 때문이다.

고양시민의 여론은 지난 6년간 “산황동 골프장은 필요없다 우리에게는 도심숲이 필요하다”고 집중되었다. 시장 자신도 많은 자리에서 산황동 골프장의 불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필요성 없는 개발사업에 대해 법은 명백하게 실효가능한 길, 재검토하여 해제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법이 없다는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여야 할 정도로 이재준 시장을 압박하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당선 이후 1개월의 기간이 주어졌을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 보류를 위한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았던 이재준 시장은, 공동검증이라는 무용한 말로 여론을 선동해왔다. 100만 도시의 시장답지 않은 어긋난 행보를 멈추고 이재준 시장은 시민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황동 골프장은 불필요하다!

산황동골프장 증설 직권취소하라.

산황산을 시민의 숲으로 보전하라!

2019년 7월 4일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원회

고양시는 경기도 보호수 1호 느티나무를 살려내라

고양시가 그동안 방치하던 산황동 느티나무는 태풍에 만신창이가 되었다.

우리는 700년 가까이 의연했던 나무를 보호하지 못한 시민들로서 깊이 죄책감을 느낀다.

이 나무는 2016년 내셔널 트러스트가 ‘보전해야 할 우리 유산’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산황동 느티나무의 수난은 10년 전 개장한 인근 골프장으로 인한 지하수 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의 태풍 피해는, 고양시의 부실한 보전조치로 인한 영양 부족과 보호 장구 부족 등으로 인한 인재이다.

지난 십 년간 느티나무 보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고양시는 “문제없다” “전문가가 괜찮다고 한다.” 며 직무를 유기했다.

마을 주민들이 느티나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부서마다 책임을 회피하기가 다반사였다.

지금 느티나무의 주요 가지 중 하나가 완전히 부러졌다.

미리 기둥을 세우고 철근으로 고정했다더라면 무사했을 가지다.

보호수 1호로서 남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가지도 부러져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물관부가 살아있다.

고양시는 반드시 되살리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남은 가지 중에도 치료가 필요한 가지들이 있다. 보호하고 육성하라.

경기도 보호수 1호의 보전책임을 가진 고양시장은 산황동 느티나무 보전을 위한 TF팀을 꾸려주시기 바란다.

고양시는 지난 봄, 나무권리선언문 작성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대대적으로 나무권리선언문을 발표하며, 호수공원에 값비싼 대리석비를 세워 나무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으므로 나무 보전에 대한 깊은 양식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이 나무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산황동 주민이다. 이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로부터 깊은 정서적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시민들이며 그 아이들이다.

고양시는 마을 주민들의 조언과 시민들의 나무 보전 의지를 듣고 반드시 산황동 느티나무를 보호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1. 고양시는 경기도 보호수 1호를 방치한 책임 통감하라!

1. 고양시는 산황동 느티나무 살려내라!

1. 고양시는 느티나무의 자녀인 산황동을 살려내라!

2019. 9. 10.

산황동 주민과 산황동 느티나무를 아끼는 고양시민 일동

공익 사수 시민들 범죄자로 몰아간 고양시장을 규탄한다!

고양시에는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투쟁을 견인해온 수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서명, 후원금, 산황산 방문, 기자회견 참여, 단식, 텐트농성 등 각종 행동으로 산황산을 살리고 시민 환경권을 지키려고 애써왔다.

그렇게 6년이 흐른 오늘, 이재준 고양시장으로 인해 3명의 시민이 기소유예, 2명이 기소되었다.

우리는 동지들의 고통을 깊이 우려하며, 이재준 고양시장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산황산이 마을 죽이는 골프장으로 변모되는 동안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이재준 의원은 무엇을 했는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기회주의적 인사 외에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 한다.

그렇다면 골프장 폐지 결정권을 가진 시장에 당선된 후 16개월간, 그는 무엇을 했는가? 관료적인 대응, 시민 범죄자 만들기, 대화 요청 거절, 하급자에게 책임 소재 미루기, 왜곡 보도자료 배포하기, 산황산에 자동차도로 내겠다는 적색경고 발령이 전부다.

“농약은 희석되니 정수장에 들어가도 괜찮다.” “농약은 바람 부는 날 안 뿌리니 괜찮다.”
고 주민 면담과 시정 질의 자리에서 서슴없이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내세워 온 녹색환경도시 공약, 파리기후협약 이행, 나무권리선언은 어떤 목적을 가진 미사여구들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왕조의 임금도 한과 속에 단식 읍소하는 백성에게는 뜻을 묻고 문제를 해소했다.
민선 시장인 이재준은, 읍소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공무원들의 폭행에 내어주고, 때 맞은 시민들이 오히려 고소당해 범죄자가 되도록 방조했다.
시민의 공익 주장을 막기 위해 독재자들이 악용했던 방식을 답습한 순간, 이재준 시장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을 잃었다.

시민들의 단식 텐트를 찢어 거리로 내쫓은 날 그는 “골프장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는 후안무치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그가 보여준 대처 방식들에 비추어볼 때, 어떻게든 시민들의 무릎을 꿇리겠다는 일관된 태도 중 하나일 뿐이었다.

우리 시민들이 요구해온 핵심 가치는 다섯 가지다.

1. 도심 그린벨트인 산황산을 보전해 생태다양성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
1. 산황동 주민 환경권과 생존권 보호할 것.
1. 고양정수장 수돗물과 인근 지역 공기를 농약 오염에 노출시키지 말 것.
1. 뇌물과 불법 행정이 헌법 기본권을 수탈하는 적폐 연속성을 끊을 것
1. 산황산을 보전하여 시민의 정서와 어린이 생태 교육에 선용할 것.

사익과 공익이 갈등할 때, 시장은 마땅히 공익을 우선하는 재량권으로 행정을 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에서 어린이무료골프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한다. 그것도 공익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는 판단이 어렵다.’는 말로 공익적 가치를 위해 싸워 온 시민들을 모독하였다.

골프장 대신 산황산에 자동차전용도로 내겠다는 발표로 주민들의 평온을 찢어놓고,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마을 공동체를 이간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

지난 6년간 범대위를 중심으로 골프장 백지화를 외친 시민들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자기 자신에게, 혹은 단체의 정체성에 비추어 수없이 존재론적 질문을 던졌다.

내가 왜 삶의 일부를 나누어 산황산 살리는 일에 연대해야 하는가?

산황산을 살리고 시민 기본권을 지키는 노력은, 우리 단체의 지향과 합치되는가? 를 자문하였다.

이재준 시장은 이러한 시민들 앞에서 몽니 부리는 수준의 부박한 정치를 해온 것에 대

해 부끄러워하기 바란다.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다음 다섯 가지 시민들의 요구를 실천하기 바란다.

1. 도심 그린벨트인 산황산을 보전해 생태다양성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
1. 산황동 주민 환경권과 생존권 보호할 것.
1. 고양정수장 수돗물과 인근 지역 공기를 농약 오염에 노출시키지 말 것.
1. 뇌물과 불법 행정의 야합이 시민 기본권을 수탈하는 예의 연속성을 끊을 것
1. 도심 녹지를 보전하여 시민의 정서와 어린이 생태 교육에 선용할 것.

이를 실천할 때까지 우리는 이재준 시장에 대한 규탄을 지속하며, 고양시에서 그를 다시 정치인으로 세울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공익 사수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간 이재준 시장을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공익 사수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간 이재준 시장을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공익 사수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간 이재준 시장을 규탄한다!

2019년 10월 22일
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창릉 신도시 계획,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재고를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제3기 신도시 대상지로 고양 창릉지역을 지정, 발표했다. 집값 잡겠다고 호언과 달리, 주택정책에 철저히 실패한 중앙정부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의 분노를 비등시키고 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개발 이익을 미끼로 삼아 문제적 신도시 건설을 기획한 중앙정부의 행보에 재고를 촉구한다. 중앙정부의 허수아비인양, 시민 삶터와 환경생태를 정치적 제물로 바치지 않기를 고양시에 권고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실패한 주택정책 수습용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고양 창릉은 97,7%가 그린벨트인 지역으로 정부가 발표한 813만㎡ 중 약790만㎡가 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와 도시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추 역할을 한다. 생태계의 보전 기능, 여가 및 오픈스페이스 기능,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기능, 수자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대기질 정화 및 대기 오염 물질 저감 기능, 다양한 생물 서식의 최적 공간 등이 그것이다. 그 자체로 거대한 자연의 정화시설이자 생명 요람인 것이다.

고양시장의 주장대로 330만㎡의 공원, 녹지, 호수공원 등을 만든다고 해도 그 공원은 생태계 파괴 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엮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시 38,000가구와 상가, 자족

시설 등이 쏟아내는 각종 오염원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 오염을 정화하기에도 역부족인 녹지가 될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금년 세계환경의날 주제는 <대기오염>이다. UNEP는 현재 ‘기후변화대응’을 초미의 관심사로 내걸고 세계적 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구에는 아직 남은 숲이 많고 고양시에도 동네마다 공원과 가로수가 있으나, 그것으로 급속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는 부족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고양시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을 보전코자 한다면, 서울과 고양시 사이에 최소한으로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훼손된 그린벨트를 육성해야 한다. 실패한 주택정책을 수습하기 위해 말없는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자연은 반드시 복수한다’는 경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2. 포화상태인 쓰레기 소각시설, 하수처리장의 오염원 증가 감수할 당위성 없다

발표된 대로라면 3기 신도시가 건설됨과 함께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구조물들로부터 각종 쓰레기와 오.폐수 등이 발생될 것이다.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고양시 쓰레기는 10만 톤 이상이다. 1인당 약 100kg이 배출된다는 말이다. 이중 60,848톤은(2018년 기준)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되고 나머지는 매립되는데, 고양환경에너지 시설의 소각 능력은 이미 포화상태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심각한 오염 물질인 염화수소(HCL) 초과배출이 적발되어 오염물질 초과 부담금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소각 용량을 넘어서 과도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수위에 이른 것이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관계자는 신도시가 건설로 38,000가구가 들어올 경우 현재 시설만으로는 쓰레기 처리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신도시 입주자들이 자기 집 옆에 쓰레기 소각장 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신도시를 위해 내가 사는 곳을 희생하고 오염원에 노출시키겠다고 나설 마을은 고양시에 더 이상 없다. 예견되는 혼란과 갈등에 대해 고양시는 어떤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대표적인 서울시 기피시설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화재나 방류수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해 창릉천 하구와 연계된 고양시 관리권인 한강하류 청정유지 및 행주어촌계 어로 구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릉지구가 건설되면 고양시는 서울시 뒤치다꺼리 개발로 인한 오. 폐수 문제 처리 또한 감수해야 한다.

고양시의 하수 처리장 3개소의 총 처리가능 용량은 38만 톤이다. 하루 평균 30.3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데, 시설 노후로 남은 가용량을 모두 가동시키기는 어렵다. 고양시 발생 하수의 가장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는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시설기준이 27만톤이고 2018년에 하루 평균 19만 톤을 처리했으나, 역시 시설이 노후 되어 안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양은 하루 20만 톤 정도라는 것이 시설물 관리자의 말이다. 즉 7만 톤의 가용 용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시설의 복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양시는 현재 곳곳에 건설 중인 공동 주택 입주 완료만으로도 하수처리장의 가용 용량 확보 위한 비용을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현재 고양시 인구의 10%가 넘는 인구가 제3기 신도시에서 지속 배출할 쓰레기와 하수 처리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있는지 고양시는 자문해야 할 것이다.

3. 앞당겨진 출근길, 정체된 퇴근길은 삶의 질을 수직 낙하시킨다

이번 발표는 교통난 해소책을 몇 가지 포함하고 있다. 옷을 찢어놓고 짜투리 천 몇 개 던져주듯 무성의한 내용이었다.

당면한 교통난 해소도 못하는 상황에 38,000세대의 자동차가 길목을 가로막는 형국이 된다면 고양시는 경기 서북부의 '교통 계토'라 칭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교통 정체로 고양시민들이 겪을 일상의 균열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고단함과 정체된 퇴근길이 가중시키는 심신의 지리멸렬. 이 폭탄을 받아든 시민들을 집값에나 양양 불락하는 자들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중가해다. 주거환경이 불안정하면 집값은 떨어진다. 정치적 수사에 능하지 못한 시민들의 표현방식을 꼬투리 삼지 말고 '삶의 질 회복'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시민들이 삶에 지쳐 다른 생각을 못 하게 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아닌 바에야 3기 신도시 개발은 재고되어야 한다. 고양시장은 쾌적한 베드타운이, 정치 도구화된 자족도시 실험보다 낫다는 시민들의 회한 맺힌 토로를 부정할 수 있는가.

4. 도심숲 지키던 시민들에게 숲 파괴안 제시한 고양시장은 반성하라

금번 신도시 발표에 편승하여 이재준 시장이 내보인 산황산 골프장 문제 해소방식은 그의 저열한 정치철학을 증명해주었다. 애초 평지로 계획되었던 백석동-서문도로간 4차선 도로를 산황산을 동강내는 선으로 변경해 도심숲을 파괴하고 주변 난개발을 유도한 것이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도로 계획안 변경과 폐지 확정 고시가 나오기까지 여전히 증설 가능 상태로 존재하는 골프장 폐지 고시를 촉구한다.

산을 파괴하지 않고도 골프장을 폐지할 수 있는 '법규와 행정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방법이 없다는 듯 시민들을 속여온 헐리우드 액션을 이재준 시장은 멈춰야 한다.

한손으로는 "나무도 오래 살아온 곳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나무권리선언문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도심숲 8만평의 생태 죽이기를 계획한 이재준 시장은 며칠 전 '골프장만 안 하면 뭐가 문제인가?' 라는 듯이 "이제 골프장 못 하게 됐으니 농성텐트 철거를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해왔다.

시청 안 농성 텐트 펼침막에 적힌 "산황산을 돌려달라!"는 절규를 매일 읽으면서도 그는 미세먼지 정화의 핵심 도심 숲을 죽이는 어깃장으로 답한 것이다. 고양환경운동연합과 뜻있는 시민들은 공무원과 지역인사들의 너물수수로 난도질된 시민 공공재, 산황산을 지키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골프장 농약보다 외곽순환도로 분진이 정수장에 더 위협하다." 고 말한 바 있는 이재준 시장이 정수장 근접해 새로 4차선 도로를 끌어들인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당선 후 10개월간 시민들의 고통을 치지도외한 끝에 위선적이고 무자비한 내막을 드러낸 고양시장에게 건강한 판단력 회복을 요청한다.

국토부와 고양시는 신도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넘비 현상으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귀기울여야한다. 실패를 덮기 위해 더 큰 오류를 범치 않기 바란다. 시민들의 사소한 일상은 위대한 연속성을 가지며 이들의 생활환경 및 재산권을 안온케 할 책임과 권력이 공복들에게 주어졌다.

또한 자연이 수행하던 기능을 인공으로 대체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임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많은 계획과 비용을 들여도 원자연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의 짐을 고양시민과 고양시 생태계가 감수하는 폐해가 없도록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지속 감시할 것이다.

2019년 5월 21일

고양환경운동연합

행주강변걷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상만세운동을 기억하며,
행주강변 생태해설과 일본의 환경역습 살피기를 합니다.”

3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

만남장소 : 고양시정 연수원 주차장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93-38)

일정 : 고양시정 연수원 주차장 - 선상만세운동유적지 - 행주어촌계 - 장항습지 앞

참가비 : 1만원 (물, 간식 개별준비)



문의 : 고양환경운동연합 031-921-7001

불의한 행정에 맞서
시민들과 지역 교회들이
산황산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의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위한
고양시청 목요 기도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주관

3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 / 고양시의회



세월호참사 5주기

고양시민 기억의 날

기억과 약속

2019. 4. 13 (토)

14:00 - 17:00

일산문화공원

프로그램

- 추모마당
- 시민참여부스
- 추모문화공연 (15:00 - 17:00)

부대행사

- 김학철 화백
- 세월호 그림 전시회
- 4.8 - 4.21 한양문고주엽

주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주최 세월호참사 5주기 고양시민기억의날 준비위원회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시민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시민주권회의, 고양시민회,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직협동조합, 고양파주두레생협, 고양파주시민의눈, 고양파주아이돌생협,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청소년사회적협동조합,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WCA, 국악문화 마루, 금정골안권평화재단, 나눔목일산교회, 녹색당고양, 놀이하는사람들, 덕양햇살아이돌생협, 대한성공회일산교회, 동녘교회, 마을학교,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주노동당고양파주지부, 민중당고양시당, 서울지하철노조지축송무지회,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아시아의친구들, 어린이도서연구회일산/화정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정의당고양갑위원회, 주날개그늘교회, 청소년단체야호, 한살림고양파주,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후원 농협 356-1302-4101-03 (김원)

고양환경운동연합 독서모임

환경 그림책 읽기

예쁜 그림이 뜻을 밝혀주는 환경 그림책 읽기 모임입니다.
 '어른이'들이 모여요.
 엄마, 아빠,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환영!

2019년 4월 - 6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 고양시의회 앞 시민불복종텐트

회비 : 13회 65,000원 (점심포함) 문의 : 031-921-7001

이름이 : 조 정 200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이발소 그림처럼>, 동화<너랑 나랑 평화랑>, 공저<그대, 강정> 거창평화인권문학상 수상

날짜	책이름 / 출판사
4월 3일	마야는 텃밭이 좋아요 / 청어람
10일	줄넘기 요정 / 문학과지성
17일	정원을 만들자 / 비룡소
24일	아빠는 환경운동가 / 교학사
5월 1일	숲으로 간 사람들 / 창비
8일	잃어버린 갯벌 새만금 / 미래아이
15일	이제 숲은 완벽해 / 어린이김영사
22일	수중 발레리나가 된 수달 / 학이사어린이
29일	내 이름은 푸른점 / 노란돼지
6월 5일	인어는 기름바다에서도 숨을 쉴 수 있나요? / 미래아이
12일	이건 꿈일 뿐이야 / 책과콩나무
19일	다시 초록섬 / 한울림어린이
26일	캡틴 쿠스토 / 문학동네



환경가족

별밤체험마당

2019.05.10.(금) 20:00~22:00시
고양자유학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355번길 37

참가대상 : 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 가족
고양자유학교 학생, 학부모

참가비 : 없음

준비물 : 휴대폰에 별자리프로그램 'sky map' 어플 다운

관측장비 : BlackDiamond 90mm EQ3 굴절 망원경 2대
LIGHTBRIDGE 10인치 돛소니언 망원경 1대

신청 : 010-4497-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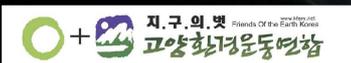
(고양환경운동 사무차장 최수자)

참가자 이름 / 나이 / 소속 (환경련 또는 고양자유학교)
참여의사를 발송해 주세요.

강사 : 오춘분

- 전 구산중학교 과학교사
- 전 우주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장
- 전 서울경기 아마추어천문학회장
- 전 서울시교육청 우주과학교육 직무연수 강사

- 현 방원중, 고창중, 장기중, 워더스학교 과학 강사
- 현 초등우주과학영재캠프 전문강사
- 현 고양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2019년도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지킴이 모집안내



미래 환경 분야에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에너지, 식량자원, 친환경 제품 등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 분야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연간 활동 내용 (총 9회차)

- 5월 - 고양누리길에서 만나는 자연 이야기
- 5월 - 환경오염과 인체 영향 및 오염원 이해하기
- 6월 - 미세먼지와 나의 삶
- 7월 - 환경 호르몬과 나의 삶
- 8월 - 장항습지 이야기
- 9월 -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 10월 - 친환경 농산물 및 친환경 라벨링
- 11월 - 친환경제품조사
- 12월 - 보고 발표 및 수료식

▶ 모집안내

- 신청 기간 : 2019년 4월 15일 10:00 ~ 5월 8일
- 신청 방법 : 전화(031-921-7001) 및 홈페이지 참조(www.kfem.net)
- 참가 자격 : 현재 고양환경운동연합 후원 회원 및 회원자녀에 한함
- 참가비 : 계좌 : 농협 157-01-166130 예금주: 고양환경운동연합(연간 참가비 일시 입금)
* 참조: -입금 시에는 반드시 참가자 이름으로 입금

일 정		모둠명	참가비(연회비)
중등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2:30-2:00	환경을 돌아보다	90,000원
고등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0:00-11:30	에코프로파일러	90,000원

* 5월은 둘째 넷째 주 토요일

* 최소인원 10명 미만시 폐강되거나 기존 강의에 통합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전

- 80%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수여 / 봉사시간 부여(3시간)





▶ 곤충수업 강의주제 및 활동

회차	날짜	강의주제	활동내용
1	7월 26일	곤충의 특징 및 이해	곤충의 특징을 통한 곤충 알아보기
2	8월 2일	곤충의 분류와 멸종위기종	산업적 분류로 보는 곤충의 종류 / 멸종위기종에 대해 배워보기
3	8월 9일	식용곤충의 환경적 가치 이해	식용곤충의 등장 배경 / 식용곤충의 환경적 가치 이해하기 / 식용곤충의 경제적 가치 이해하기
4	8월 16일	곤충 채집 및 곤충 표본 배워보기	곤충 채집 방법 익히기 / 곤충 표본 배워보기
5	8월 23일	곤충은 환경지킴이	곤충의 환경 정화 기능 알아보기 / 환경지표곤충에 대해 배워보기

→ 환경과 곤충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태계 내에서 곤충의 역할을 배워 지속가능한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 모집 안내

- 대 상 : 초등학생
- 활동 일시 : 7월 26일 - 8월 23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5회차 강의 및 활동)
- 장 소 : 곤충테마카페 -커피에 빠진 장풍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6번길 25-30)
- 모집 인원 : 12명 (입금순)
- 신청 기간 : 6월 1일 - 6월 28일
- 신청 방법 : 010-4497-1998로 문자로 신청 후 계좌 입금
(문자로 신청시 학교명, 학생이름, 학생나이,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적어서 보내주세요)
- 참 가 비 : 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 6만원 / 비회원 8만원 (재료비 포함)
*계좌 : 농협 / 157-01-166130 / 예금주 고양환경운동연합(참가비 일시 입금)

▶ 기타 특전

- 80%이상 출석시 수료증 부여



제3차 문화제

산황동 골프장을 스승으로!!

2019.7.4
목요일
오후7시
고양시청

식사_ 열무된장비빔밥, 어린이 특선메뉴
커피와 음료_ 달려라커피
발언_ 환경운동연합, 기독교대책위, 밥통, 녹색당
퀴즈_ 어린이와 함께하는 환경퀴즈
공연_ 초대가수 임정득



공동
주최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녹색당,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
달려라커피,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2019고양환경운동연합 토론회

3기 신도시 계획, 고양시민은 무엇을 주시하는가?

2019.7.29(월) 18:00-20:00

일산동구청 대회의실

031-921-7001 고양환경운동연합

- 발제** 박숙현 경희사이버대 교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
- 진행**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 토론** 김평순 고양시청 녹지과장
 이태영 녹색당 정책위원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한동욱 에코코리아 이사
- 조 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



Hello! Night
8월

환경영화

무료상영회

screen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한 가족의 무한 도전
노임팩트맨
NO TV! NO 인위 상품! NO 자동차!
누적 항목에서 떨어지는 가장정직한 환경 프로젝트!

show

일시 : 8월 9일 (금)
저녁 7시 30분~9시

장소 : 커피에 빠진 장풍이
(031-916-6644)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6번길 25-30

대상 : 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가족
문의 전화 : 고양환경운동연합 031-921-7001

생명·평화·삶을 이야기하는 가을저녁

풍백산책

▶10.26(토) 오후 7시

만나는 곳 : 풍산역 1번 출구

이끄는 분 : **공빛나** 오디시 무용가



▶11.16(토) 오후 7시

만나는 곳 : 풍산역 1번 출구

이끄는 분 : **김순희** 해금연주자



참가비 5,000원

농협 157-01-159315

입금 후 문자 010-8827-9685

행사 문의 031-921-7001

 지구·목숨·공생
과상환경운동연합

2019년도 성인 환경지킴이 프로그램(11월)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 환경지킴이

정규프로그램(5주)



야생동물과 같이 살기

- 일시 : 11.2(토) 10:00~12:00
- 강사 : 주인(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진료 수의사)
- 장소 :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정원의 수목

- 일시 : 11.7(목) 10:00~12:00
- 강사 : 곽정인(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 장소 : 창덕궁



에너지 순환

- 일시 : 11.16(토) 10:00~12:00
- 장소 : 에너지드림센터



자연생태의 다양성

- 일시 : 11.23(토) 10:00~12:00
- 장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생태계 속의 곤충

- 일시 : 11.28(목) 19:00~21:00
- 강사 : 김태우박사(국립생물자원관)
- 장소 :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실

교육프로그램 신청

- 신청기간 : 2019년 10월 7일 ~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 신청접수 : 문자접수 (010-9438-9587) 후 계좌 입금
- 참여대상 : 성인
- 참가비 : 회원 4만원 / 비회원 5만원 ※입금 시에는 반드시 참가자 이름으로 입금
- 계좌 : 농협 157-01-166130 예금주 : 고양환경운동연합(참가비 일시 입금)
- 교육문의 : 031) 921-7001

 **고양환경운동연합**

< 메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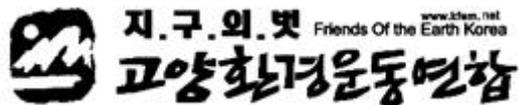
2020년 총회준비위원회 위원

김경희 김해련 마귀자 문희영
박상빈 박찬호 오영주 운영학
오춘분 정이랑 조 정 정성남

1차 : 2019년 11월 13일 2차 : 2019년 11월 27일
3차 : 2019년 12월 11일 4차 : 2018년 12월 27일
5차 : 2020년 01월 08일



우리힘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녹색세상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6-5 (주교동. 유림빌딩) 601호
TEL : 031) 921-7001 FAX : 031) 629-7646 email : koyang@kfem.or.kr

| 생명 | 평화 | 생태 | 참여 |